

2023.09

이슈포커스 2023-03호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수산 이슈포커스

최근 수산·어촌 주요 지표 동향 | 박지훈 연구위원

기후변화와 수산업 영향 | 박영진 책임연구원

어업인 기초생활수당 도입 필요성 | 이창수 책임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현안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슈포커스를 발간 ·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슈포커스

Topic

- 최근 수산·어촌 주요 지표 동향 3
| 박 지 훈 연구위원
 - 기후변화와 수산업 영향 35
| 박 영 진 책임연구원
 - 어업인 기초생활수당 도입 필요성 59
| 이 창 수 책임연구원
-



최근 수산·어촌 주요 지표 동향

박 지 훈 연구위원
(shjpark@suhyup.co.kr)

목 차

요 약	5
I. 어업생산 부문	7
II. 어가경제 부문	15
III. 수산업 대외무역 부문	21
IV. 수산업 내외부 환경부문	29

요 약

■ 어업생산 부문

- 2022년 전체 어업생산량은 360만 톤으로 전년 383만 2천 톤 대비 6.0% 감소
- 2022년 연근해 생산량은 89만 톤으로 전년 94만 톤 대비 5.3% 감소
- 2022년 천해양식 생산량은 227만 톤으로 전년 240만 톤 대비 5.4% 감소
- 2022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40만 톤으로 전년 45만 톤 대비 11.1% 감소
- 2022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5만 톤으로 전년 4만 톤 대비 14.0% 증가

■ 어가경제 부문

- 2022년 어가 인구는 9만 805명
 - 어가 인구는 '90년 대비 81.7%, '00년 대비 63.9% 감소
- 2022년 어가 수는 4만 2,536가구
 - 어가 수는 '90년 대비 65.0%, '00년 대비 47.9% 감소
- 연령별 어가 인구 중 60대 이상 연령 비중은 62.2%로 고령화 심화
 - 어촌 고령화로 어촌의 유지, 발전에 심각한 위기 직면
- 2022년 어가 소득은 평균 5,239만 원으로 도시가구 소득 대비 75.3% 수준
- 2022년 양식어업 어가소득은 7,841만 원으로 어로어업 소득 4,393만 원보다 1.79배 많음
- 2022년 어가 총수입은 8,320만 원, 어가 경영비는 6,248만 원
- 2022년 어가 평균자산은 5억 1,067만 원, 부채는 5,978만 원

■ 수산업 대외무역 부문

- 2022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전년 28억 달러 대비 14.3% 증가
 - 최근 5년 수산물 수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7.3%로 수출 증가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 산업 전체 수출(6,836억 달러)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 2022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70억 달러로 전년 62억 달러 대비 12.9% 증가
 - 동년 우리나라 산업 전체 수입(7,314억 달러)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 최근 5년 평균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수지 35억 달러 적자
- 2022년 금액기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태국 등의 순임
- 2022년 금액기준, 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등의 순임
- 수산물 수출 상위 품목은 김과 참치, 2022년 두 품목이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약 40%

■ 수산업 내외부 환경부문

- 2023년 9월 기준, 우리나라 FTA 협상 발효 21건 59개국
 - 현재 협상 중인 FTA는 10건
-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몰 거래량 대폭 증가
- 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세 :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몰 거래금액
(2001년) 1,014억 원 → (2022년) 9조 4,611억 원, 약 93배 증가
- 우리나라 바다유입 해양쓰레기 연간 약 13만 톤, 2021년 해양쓰레기 수거량 12.1만 톤

I 어업생산 부문

1. 어업별 어업생산 규모

■ 2022년 어업생산량은 360만 4천 톤으로 전년 383만 2천 톤 대비 6.0% 감소

- 전체 어업생산량에서 천해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62.9%로 연근해 생산량의 2.6배 큼

【어업별 어업생산 규모】

(단위: 천톤,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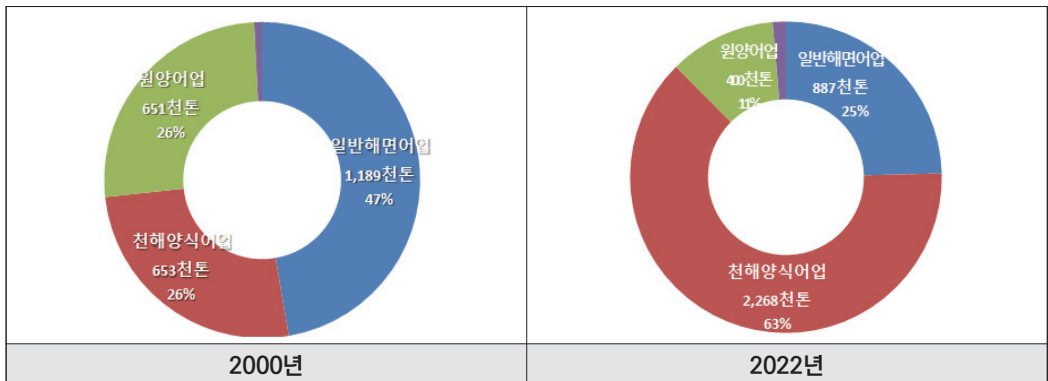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생산량 비중 (2022)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전체	3,713	8,832,971	3,832	9,281,651	3,604	9,241,255	100.0
연근해	934	4,371,757	943	4,150,427	887	4,036,954	24.6
천해양식	2,308	2,895,227	2,401	3,225,896	2,268	3,384,320	62.9
원양	437	1,121,155	446	1,354,730	400	1,125,920	11.1
내수면	34	444,832	43	520,599	49	694,062	1.4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00년 천해양식 생산량은 63만 톤(비중 26%)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3.5배 증가한 230만 톤(비중 63%)

- 점차 양식어업 중심의 어업생산구조로 전환되는 추세

【어업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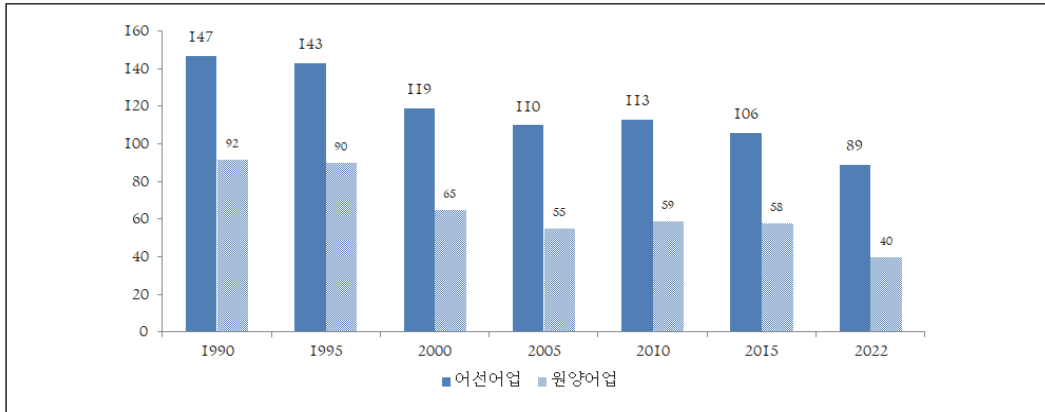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천해양식업과 달리 연근해어업(어선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어선어업 생산량 2022년 89만 톤으로 1990년 대비 39.5% 감소
- 원양어업 생산량 2022년 4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56.5% 감소

【어업별 생산량 추이】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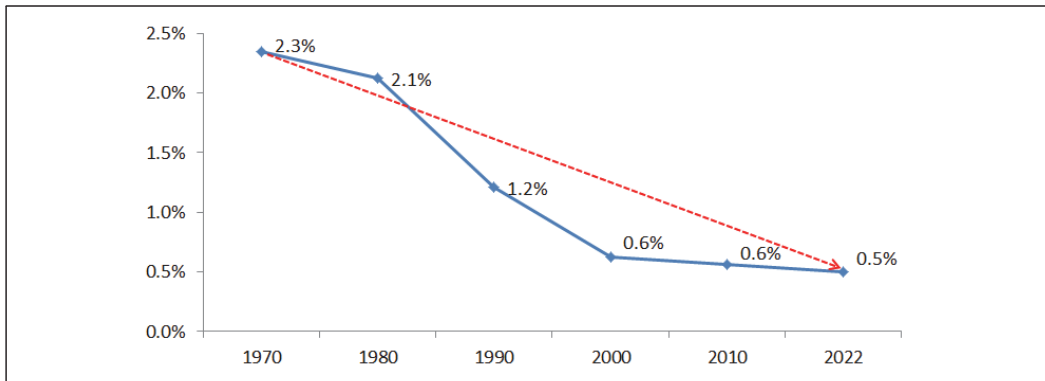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한편 어업생산금액은 2022년 9조 2,413억 원으로 전년 9조 2,817억 원 대비 0.4% 감소

- 어업생산액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0.5% 수준으로 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
-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어업생산액의 비중은 1970년 2.3%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 1% 이하 수준으로 감소

【우리나라 GDP 대비 어업생산액】



자료: 한국은행·통계청

2. 품종별 어업생산

1)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

■ 2022년 생산금액 기준,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은 갈치, 살오징어, 꽃게, 멸치, 고등어류 등

- 갈치 생산금액이 4,489억 원으로 가장 크며, 살오징어 3,059억 원, 꽃게 2,939억 원, 멸치 2,541억 원, 고등어 1,870억 원 등의 순으로 높음

■ 생산량에서는 고등어와 멸치가 가장 많음. 고등어 생산량은 2022년 15만 톤이며, 멸치 생산량은 13만 톤 임

■ 꽃게, 삼치, 붉은대게를 제외한 모든 주요 품종의 2022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 특히 오징어와 참조기의 생산량 감소 폭이 매우 큼

- 참조기, 살오징어의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 폭 : 2021년 대비 각 48.0%, 40.0% 감소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22년 금액순)】

(단위: 톤, 백만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22/ '21)
갈치	생산량	49,450	43,479	65,719	63,056	54,000	-14.4
	생산금액	351,995	302,600	466,031	453,686	449,826	-0.9
살오징어	생산량	46,274	51,817	56,989	60,880	36,549	-40.0
	생산금액	382,055	384,354	506,153	461,690	305,919	-33.7
꽃게	생산량	11,770	12,306	15,417	19,715	21,809	10.6
	생산금액	213,667	221,664	268,281	303,291	293,933	-3.1
멸치	생산량	188,684	171,677	216,748	143,414	132,151	-7.9
	생산금액	323,603	283,204	337,970	197,878	254,089	28.4
고등어류	생산량	215,933	121,373	82,839	151,029	152,473	1.0
	생산금액	212,013	148,817	173,030	216,650	186,977	-13.7
문어류	생산량	9,744	9,808	8,988	9,239	7,729	-16.3
	생산금액	173,992	175,635	159,361	150,069	154,651	3.1
삼치류	생산량	32,089	37,841	32,949	30,950	35,654	15.2
	생산금액	105,641	134,993	112,672	92,912	150,864	62.4
가자미류	생산량	15,301	18,171	21,921	22,693	19,324	-14.8
	생산금액	130,881	131,537	126,413	127,206	125,060	-1.7
참조기	생산량	23,274	25,741	41,039	31,562	16,400	-48.0
	생산금액	215,070	186,059	289,879	207,441	123,228	-40.6
붉은대게	생산량	20,344	15,874	15,548	21,050	24,694	17.3
	생산금액	93,469	100,926	95,134	86,764	99,902	15.1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

- 2022년 생산금액 기준, 천해양식 주요 품종은 넙치, 전복, 김, 굴, 조피볼락 등
 - 넙치의 생산금액은 7,034억 원으로 가장 크며, 이어 전복 6,786억 원, 김 4,695억 원, 굴 2,946억 원, 조피볼락 2,011억 원 등의 순
- 생산량 기준에서는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생산량이 가장 많음
 - 지난해 기준, 미역의 생산량이 59만 톤으로 가장 많으며, 다시마 56만 톤, 김 55만 톤임
- 2022년 생산량 및 생산금액에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양식품종은 넙치, 미역, 가자미, 우렁쟁이, 가리비임
 - 이외 주요 양식품종은 일부 소폭 증가 혹은 감소 추세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22년 금액순)】

(단위: 톤, 백만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22/ '21)
넙치류	생산량	37,241	43,360	43,813	41,776	45,884	9.8
	생산금액	495,391	430,809	539,218	661,958	703,438	6.3
전복류	생산량	20,053	18,436	20,059	23,199	22,078	-4.8
	생산금액	607,142	591,855	610,340	694,243	678,606	-2.3
김류	생산량	567,162	605,767	536,127	547,413	550,221	0.5
	생산금액	572,365	560,584	508,324	474,852	469,477	-1.1
굴류	생산량	303,183	326,190	300,084	305,914	300,692	-1.7
	생산금액	211,230	228,788	263,487	277,347	294,597	6.2
조피볼락	생산량	22,702	20,348	21,568	17,473	16,189	-7.3
	생산금액	192,508	155,473	171,182	219,308	201,103	-8.3
흰다리새우	생산량	5,492	7,542	8,124	9,545	9,504	-0.4
	생산금액	95,691	105,447	139,247	153,787	168,326	9.5
미역류	생산량	515,666	520,267	501,501	574,504	585,955	2.0
	생산금액	135,923	194,068	131,009	104,515	117,732	12.6
다시마류	생산량	572,600	662,558	675,074	685,239	560,848	-18.2
	생산금액	90,283	88,743	87,012	119,679	110,893	-7.3
참돔	생산량	5,103	5,502	5,745	8,313	8,078	-2.8
	생산금액	68,102	60,911	50,021	83,830	102,327	22.1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22/ '21)
송어류	생산량	6,382	6,609	8,449	10,352	7,928	-23.4
	생산금액	54,223	51,012	58,044	89,516	93,909	4.9
가자미류	생산량	3,373	3,669	3,336	6,214	7,723	24.3
	생산금액	34,651	37,600	36,628	67,034	92,346	37.8
우렁챙이	생산량	37,312	26,040	30,613	17,400	19,330	11.1
	생산금액	76,384	56,310	63,212	44,118	65,016	47.4
바지락	생산량	19,853	22,254	18,054	23,818	22,704	-4.7
	생산금액	50,892	55,940	50,060	64,596	64,102	-0.8
가리비류	생산량	5,329	5,082	5,591	5,107	7,129	39.6
	생산금액	15,083	19,891	24,526	25,064	27,612	10.2
홍합류	생산량	49,485	59,759	61,968	63,672	53,064	-16.7
	생산금액	21,565	23,578	27,563	25,020	25,503	1.9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3)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

■ 2022년 생산금액 기준, 원양어업의 주요 품종은 오징어, 다랑어, 이빨고기, 명태 등

- 대서양의 오징어 생산금액은 지난해 3,024억 원으로 가장 크며, 이어 태평양의 가다랑어, 2,949억 원, 황다랑어 1,585억 원, 눈다랑어 1,548억 원, 남빙양의 이빨고기 755억 원, 원양 명태 310억 원 등의 순으로 생산금액이 많음

■ 생산량에서는 가다랑어가 지난해 20만 톤으로 절대적으로 많음

■ 2022년 전년 대비 생산량 및 생산금액의 증가 폭이 가장 큰 원양 품종은 한치류

【원양어업 주요 품종('22년 금액순)】

(단위: 톤, 백만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22/ '21)
오징어류	생산량	35,074	20,540	36,540	73,867	48,157	-34.8
	생산금액	139,849	92,814	225,719	476,351	302,408	-36.5
가다랑어	생산량	246,719	279,032	214,685	189,457	202,304	6.8
	생산금액	435,011	383,719	312,719	276,128	294,916	6.8
황다랑어	생산량	43,510	56,881	59,315	60,472	51,667	-14.6
	생산금액	137,774	201,268	176,970	174,663	158,459	-9.3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22/’21)
눈다랑어	생산량	23,571	23,592	22,952	23,415	21,010	-10.3
	생산금액	139,935	182,218	159,592	164,277	154,812	-5.8
이빨고기류 (메로)	생산량	3,252	3,114	3,098	4,393	3,541	-19.4
	생산금액	71,622	73,307	66,084	93,724	75,545	-19.4
명태	생산량	23,993	23,915	27,196	27,779	21,591	-22.3
	생산금액	25,553	27,335	39,081	39,919	31,026	-22.3
남극크릴	생산량	36,005	42,939	44,567	37,984	30,896	-18.7
	생산금액	22,388	26,923	33,568	28,610	23,272	-18.7
남방 참다랑어	생산량	1,118	1,057	1,082	1,087	1,028	-5.4
	생산금액	17,484	17,827	18,885	18,970	17,937	-5.4
꽂치	생산량	23,701	10,465	5,993	4,788	3,438	-28.2
	생산금액	53,612	15,729	28,896	23,086	16,578	-28.2
한치류	생산량	1,461	1,680	2,237	1,134	3,325	193.2
	생산금액	5,236	3,327	8,481	4,298	12,603	193.2
날개 다랑어	생산량	2,166	2,902	1,430	1,746	2,307	32.1
	생산금액	5,693	7,867	4,182	5,104	6,745	32.2
황새치	생산량	1,212	1,024	1,076	960	1,130	17.7
	생산금액	5,879	5,760	6,194	5,528	6,505	17.7
민대구류	생산량	8,312	12,623	5,574	9,382	4,063	-56.7
	생산금액	12,351	18,258	8,461	14,241	6,162	-56.7
대구	생산량	4,000	4,400	4,823	3,474	1,627	-53.2
	생산금액	9,680	9,990	10,952	7,888	3,692	-53.2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4)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

■ 2022년 금액 기준 내수면어업의 주요 품종은 뱀장어, 송어, 우렁이, 붕어, 메기, 향어 등

- 뱀장어의 생산금액이 5,111억 원으로 가장 크며, 이어 송어류 400억 원, 우렁이류 320억 원, 붕어류 182억 원 등의 순

■ 생산량 기준에서는 뱀장어의 2022년 생산량이 1만 8,131톤으로 가장 많음

■ 내수면어업의 품종은 연근해어업, 양식어업과 원양어업의 품종과 달리 대체로 생산량 및 생산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음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22년 금액순)】

(단위: 톤, 백만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22/ '21)
뽕장어	생산량	10,589	10,942	9,788	15,772	18,131	15.0
	생산금액	312,862	332,058	314,520	377,459	511,144	35.4
송어류	생산량	3,179	3,285	2,414	2,483	3,043	22.6
	생산금액	29,371	27,319	19,426	22,151	40,016	80.7
우렁이류	생산량	5,847	5,469	6,073	8,055	10,282	27.6
	생산금액	14,885	14,327	14,777	21,092	32,010	51.8
붕어류	생산량	2,138	2,249	2,609	2,977	3,464	16.4
	생산금액	12,611	13,245	14,266	14,778	18,196	23.1
메기	생산량	4,846	4,269	3,951	3,783	3,909	3.3
	생산금액	20,436	19,644	13,315	12,981	16,973	30.8
항어	생산량	1,579	1,523	1,678	2,028	1,847	-8.9
	생산금액	8,921	8,841	7,677	9,619	10,880	13.1
미꾸라지류	생산량	668	645	690	678	690	1.8
	생산금액	7,212	7,150	7,237	7,186	7,520	4.6
잉어	생산량	905	1,125	1,278	1,477	1,798	21.7
	생산금액	4,630	4,627	4,768	5,090	6,346	24.7
다슬기류	생산량	742	945	728	553	523	-5.4
	생산금액	7,131	8,763	7,093	5,860	6,328	8.0
동자개류	생산량	435	518	389	417	407	-2.4
	생산금액	5,082	5,859	4,441	4,509	4,606	2.2
송어류	생산량	539	455	295	626	741	18.4
	생산금액	2,192	1,931	1,188	2,882	3,526	22.3
자라	생산량	160	153	59	50	66	32.0
	생산금액	7,952	7,549	2,788	2,326	3,186	37.0
블루길	생산량	734	643	789	584	633	8.4
	생산금액	710	1,132	1,111	630	2,125	237.3
참게류	생산량	144	174	107	158	118	-25.3
	생산금액	2,093	2,904	1,909	2,555	2,032	-20.5
새우류	생산량	99	235	178	90	97	7.8
	생산금액	1,478	3,783	2,568	1,722	1,80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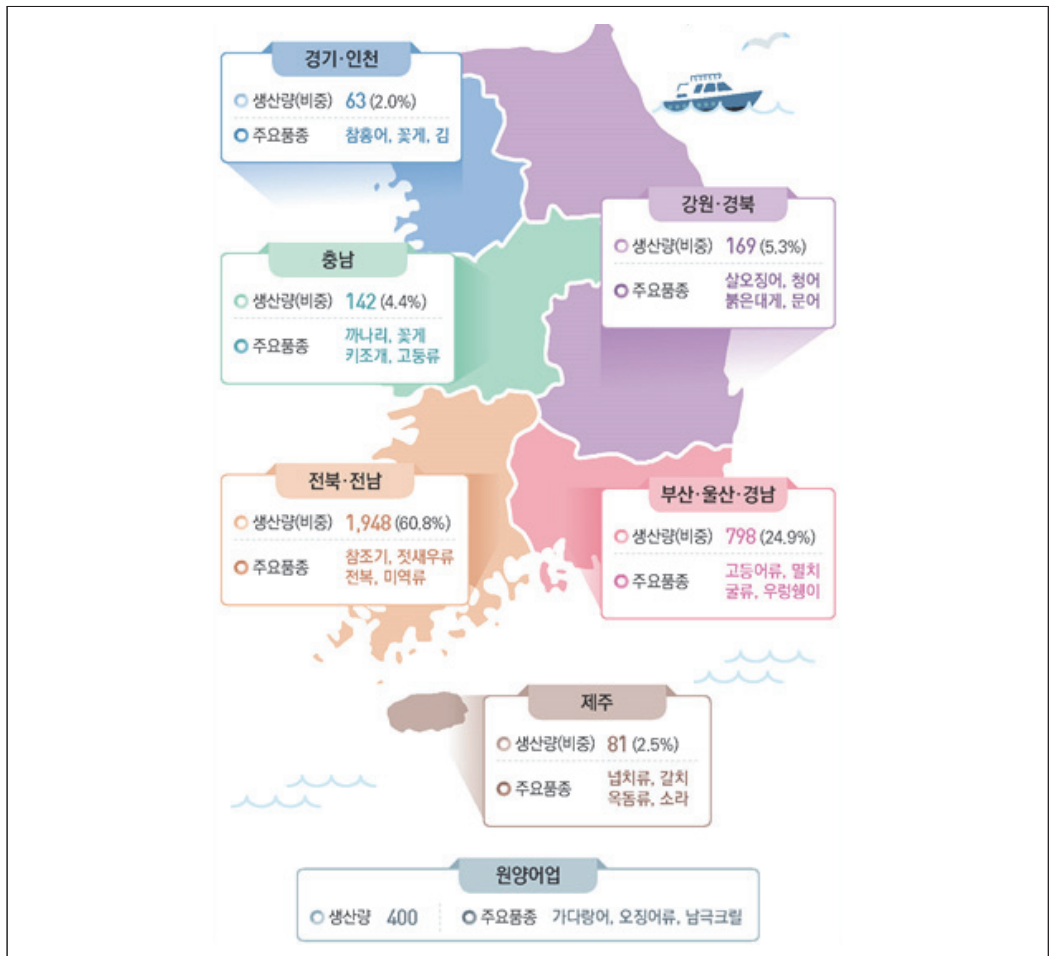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3. 주요 지역별 어업생산량

- 2022년, 어업생산량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권으로 전체(360만 톤)의 60.8% (195만 톤)를 차지. 주요 품종은 참조기, 전복, 미역류, 젓새우류
- 이어 부·울·경 지역 24.9%(80만 톤), 강원·경북 5.3%(17만 톤), 충남 4.4%(14만 톤), 제주 2.5%(8만 톤), 경기·인천 2.0%(6만 톤) 순으로 생산량이 많음
- 지역별 주요 생산 품종은 부·울·경은 고등어, 멸치, 굴, 멍게이며 강원·경북은 살오징어, 청어, 붉은대게, 문어, 충남은 꽃게, 까나리, 키조개 등, 제주는 넙치, 갈치, 옥동 등임

【우리나라 주요 지역별 어업생산량(2022년)】

(단위: 천톤)



자료: 통계청(2023.2.24), 어업생산동향조사 보도자료

Ⅱ 어가경제 부문

1. 어가인구

1) 어가 및 어가인구

■ 2022년 우리나라 어가 수는 4만 2,536가구

- 어가 수는 '90년 대비 65.0%, '00년 대비 47.9% 감소

■ 어가 인구는 2022년 9만 805명

- 어가 인구는 '90년 대비 81.7%, '00년 대비 63.9% 감소

【어가 및 어가인구】

(단위: 가구,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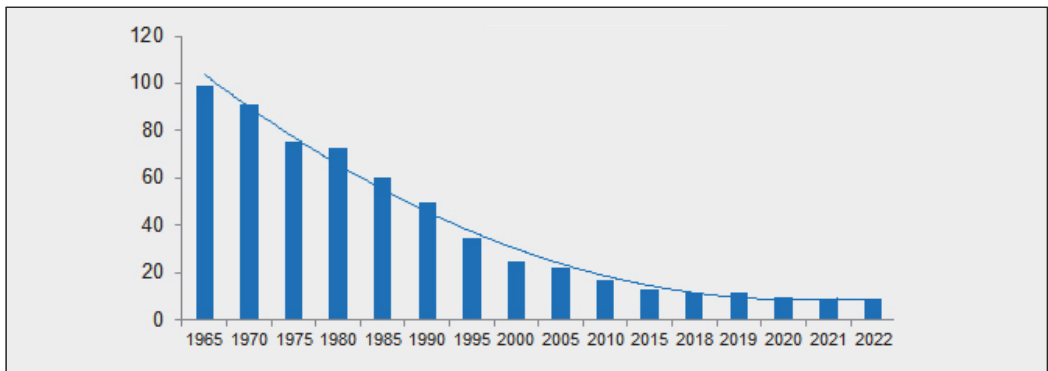
	1990	2000	2020	2021	2022	90년 대비	00년 대비
어가 수	121,525	81,571	43,149	43,327	42,536	-65.0	-47.9
어가 인구	496,089	251,349	97,062	93,798	90,805	-81.7	-63.9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어가 수와 어가인구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

- 1965년 어가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했으나, 지속적·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음

【어가인구 추이(만명)】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 연령별 어가인구

- 연령별 어가 인구 중, 60~69세 연령이 2022년 기준 3만 1,305명으로 가장 많음.
비중으로는 34.5%

- 반면 50대 미만은 1만 9,607명으로 전체의 16.3% 임

- '10년 대비 연령별 어가인구의 증감 추이를 보면, 50대 미만 연령이 72.7%로 가장 많이 감소

- 반면 70세 이상은 '10년 대비 4.6% 증가함

【연령별 어가인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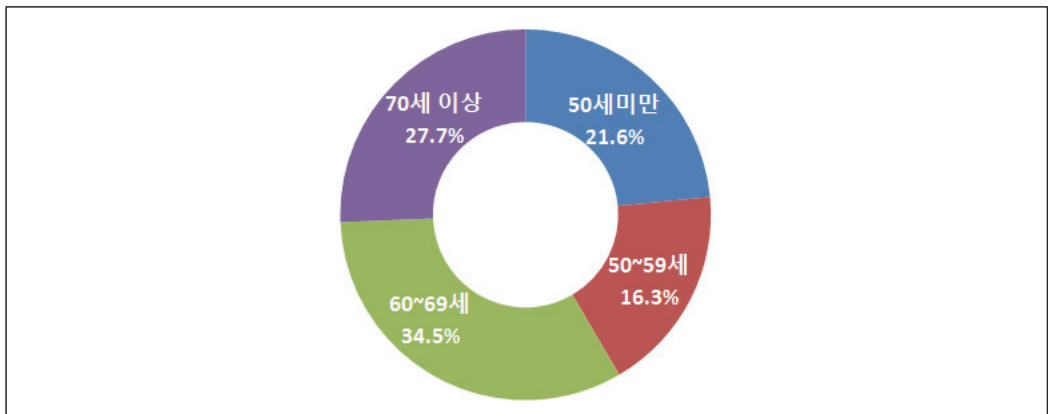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2	'10년 대비
50대 미만	71,902	40,045	38,001	34,145	31,214	28,438	19,607	-72.7
50~59세	40,607	31,860	29,463	27,430	25,042	23,184	14,772	-63.6
60~69세	34,659	32,675	33,291	33,724	33,435	32,884	31,305	-9.7
70세 이상	24,023	23,772	24,905	26,436	27,192	29,392	25,121	4.6
계	171,191	128,352	125,660	121,735	116,883	113,898	90,805	-47.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전체 어가인구('22년) 중, 60대 이상 연령 비중은 62.2%로 고령화 심화

- 어촌 고령화로 어촌의 유지, 발전에 심각한 위기 직면

【연령별 어가인구(명), 2022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3) 경영형태별 어가

■ 2022년 전체 어가 중,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는 3만 1,362가구로 전체의 73.7%를 차지

- 반면,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가는 전체의 26.3%로 어로어가의 2.8배 작음

【경영형태별 어가수】

(단위: 가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2022)
양식업	15,323	15,292	10,335	11,228	11,174	26.3
어로어업	36,171	35,616	32,814	32,100	31,362	73.7
계	51,494	50,909	43,149	43,327	42,536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 어가 경영지표

1) 어가 소득

■ 2022년 어가소득은 평균 5,239만 원

- 2018년 대비 어가소득은 2.1% 증가한 데 반해, 농가소득은 9.7%, 도시가구 소득은 무려 23.2% 증가

■ 도시가구 소득 대비 어가소득은 지난해 75.3%로 도시가구와 어가 간 소득의 불균형 현상 지속

【어가 소득】

(단위: 천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8년 대비
어가소득	51,836	48,415	53,187	52,392	52,911	2.1
농가소득	42,066	41,182	45,029	47,759	46,153	9.7
도시가구 소득	57,012	62,394	64,393	66,185	70,224	23.2
도시가구 대비 어가소득	90.9	77.6	82.9	79.2	75.3	-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어업형태별 어가 소득을 보면 2022년 양식어업의 어가소득은 7,841만 원으로 어로어업 소득 4,393만 원보다 1.79배 많음

- 어가 내 소득의 양극화 현상 지속

【어업형태별 어가 소득】

(단위: 천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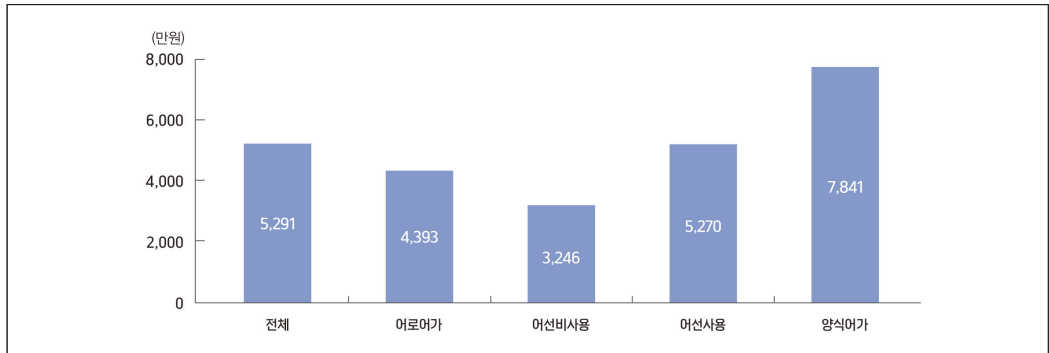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어가소득	51,836	48,415	53,187	52,392	52,911
어로어업	41,720	41,884	43,095	44,747	43,926
양식어업	79,406	65,593	86,378	74,331	78,410
소득차(배)	1.90	1.57	2.00	1.66	1.79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어로어업 내에서도 어선사용 어가의 소득이 어선비사용어가의 소득보다 1.6배 많음

- 2022년 어선사용 어가소득 5,270만 원, 반면 어선비사용 어가소득은 3,246만 원

【어업형태별 어가소득('22년)】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한편, 2022년 50세 미만 연령의 어가 소득은 6,713만 원으로 70세 이상 어가 소득 3,417만 원보다 약 2배 차이를 보임

【연령별 어가 소득】

(단위: 천원, 배)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0세 미만	103,500	90,832	89,568	55,228	67,133
70세 이상	27,350	27,665	27,807	32,852	34,168
소득차(배)	3.78	3.28	3.22	1.68	1.96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 어가의 어업 총수입 및 경영비

- 2022년 어업총수입은 8,320만 원으로 지난 5년 대비 14.6% 증가
 - 이 중, 어로어업의 총수입은 3,284만 원, 양식어업의 총수입은 4,995만 원
- 한편 어업경영비는 6,248만 원으로 지난 5년 전 대비 33.1% 증가
 - 어로어업의 경영비는 2,437만 원, 양식어업 경영비는 3,810만 원
- 지난 5년 대비 어업경영비의 증가 폭이 어업총수입의 증가 폭보다 2.3배 큼

【어업 총수입 및 경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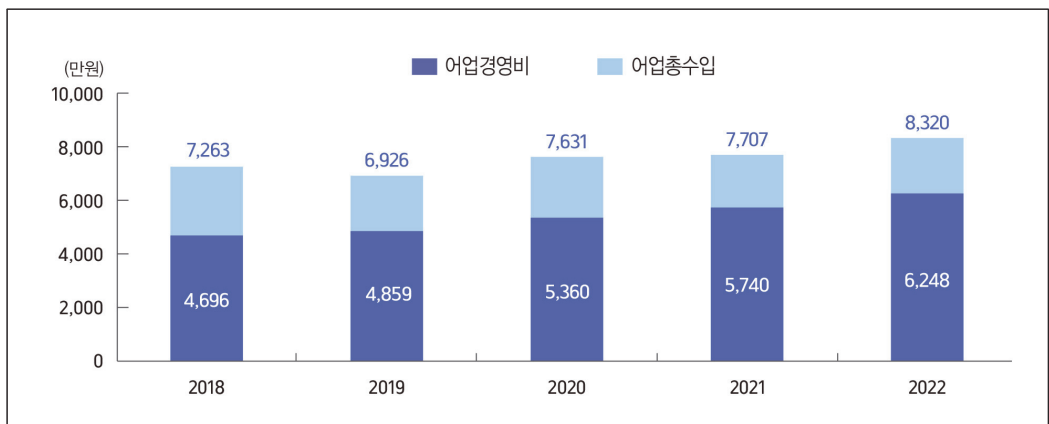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8년 대비
어업 총수입	72,625	69,260	76,312	77,072	83,198	14.6
어로 수입	29,208	29,142	30,727	30,468	32,837	12.4
양식 수입	42,349	38,763	45,045	45,070	49,950	17.9
어업경영비	46,955	48,589	53,596	57,396	62,477	33.1
어로지출	18,770	19,452	21,030	22,272	24,372	29.8
양식지출	28,185	29,137	32,566	35,124	38,104	35.2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2022년 어업 총수입에서 어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5.1%

【어가의 어업총수입 및 어업경영비 추이】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3) 어가 자산 및 부채

■ 2022년 어가 평균자산은 5억 1,067만원으로 지난 5년 대비 17.6% 증가

○ 고정자산은 3억 7,838만 원, 유동자산은 1억 3,229만 원

■ 한편 어가 평균부채는 5,978만 원으로 지난 5년 대비 2.0% 감소

【어가 자산 및 부채】

(단위: 천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8년 대비
어가 자산	434,274	456,701	503,196	501,865	510,670	17.6
고정 자산	322,031	344,764	367,468	374,309	378,383	17.5
유동 자산	112,243	111,937	135,728	127,556	132,287	17.9
어가 부채	61,004	63,493	63,903	64,397	59,776	-2.0

주: 1) 고정자산: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가구·비품, 선박, 대동·식물, 무형자산

2) 유동자산: 현금, 예·적금(정기) 등 금융자산, 재고자산(미처분 농수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사용중인 어업자재, 소동물 등)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Ⅲ 수산업 대외무역 부문

1.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규모

1) 수산물 수출 규모

■ 2022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32억 달러

○ 최근 5년 수산물 수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7.3%로 수출 증가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 산업 전체 수출(6,836억 달러)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 및 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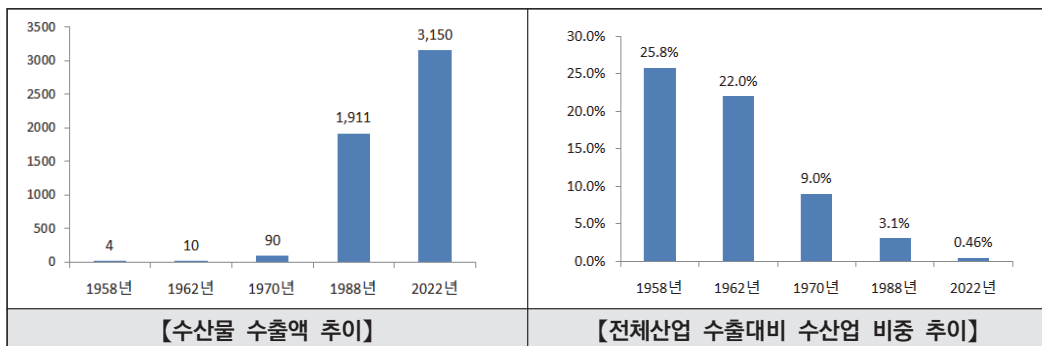
(단위: 백만불,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연평균 증가율
전체 수출액	604,860	542,233	512,498	644,400	683,585	100.0	3.1
반도체	126,706	93,930	99,177	127,980	129,229	18.9	0.5
석유제품	46,350	40,691	24,168	38,121	62,875	9.2	7.9
자동차	40,887	43,036	37,399	46,465	54,067	7.9	7.2
합성수지	22,960	20,251	19,202	29,144	28,078	4.1	5.2
자동차부품	23,119	22,535	18,640	22,776	23,316	3.4	0.2
철강판	19,669	18,606	15,997	22,494	22,401	3.3	3.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4,856	20,657	18,151	21,543	21,299	3.1	-3.8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1,275	20,159	19,749	22,988	18,178	2.7	-3.9
무선통신기기	17,085	14,079	13,181	19,235	17,231	2.5	0.2
컴퓨터	10,760	8,540	13,426	16,741	15,956	2.3	10.4
농산물	5,132	5,322	5,806	6,342	6,286	0.9	5.2
수산물	2,377	2,505	2,306	2,817	3,150	0.5	7.3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1958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를 수산물이 차지했으나 현재 대폭 감소

【수산물 수출액 및 산업비중 추이】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 수산물 수입 규모

2022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70억 달러

- 최근 5년 수산물 수입액의 연평균증가율은 수출액 증가율 7.3%보다 적은 3.2%로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 전체 수입(7,314억 달러)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 및 산업 비중】

(단위: 백만불,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연평균 증가율
전체 수입액	535,202	503,343	467,633	615,093	731,370	100.0	8.1
원유	80,393	70,252	44,456	67,013	105,964	14.5	7.1
반도체	44,728	47,032	50,283	61,391	74,786	10.2	13.7
천연가스	23,189	20,567	15,716	25,453	50,022	6.8	21.2
석탄	16,703	14,209	9,596	14,699	28,332	3.9	14.1
석유제품	21,443	17,539	12,952	24,085	26,711	3.7	5.6
반도체제조용장비	18,805	10,510	17,039	25,737	23,170	3.2	5.4
정밀화학원료	13,021	11,334	10,642	15,588	21,812	3.0	13.8
컴퓨터	12,708	11,345	13,210	16,109	16,354	2.2	6.5
자동차	12,099	11,986	13,074	14,250	15,372	2.1	6.2
무선통신기기	12,426	13,623	12,951	15,179	14,083	1.9	3.2
농산물	18,785	18,464	18,982	23,352	27,312	3.7	9.8
수산물	6,125	5,794	5,621	6,182	6,959	1.0	3.2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3) 수산물 무역수지

■ 최근 5년 평균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수지 35억 달러 적자

■ 이 중, 대중국 수산물 무역적자 7.5억 달러, 비중으로는 21.5%

【수산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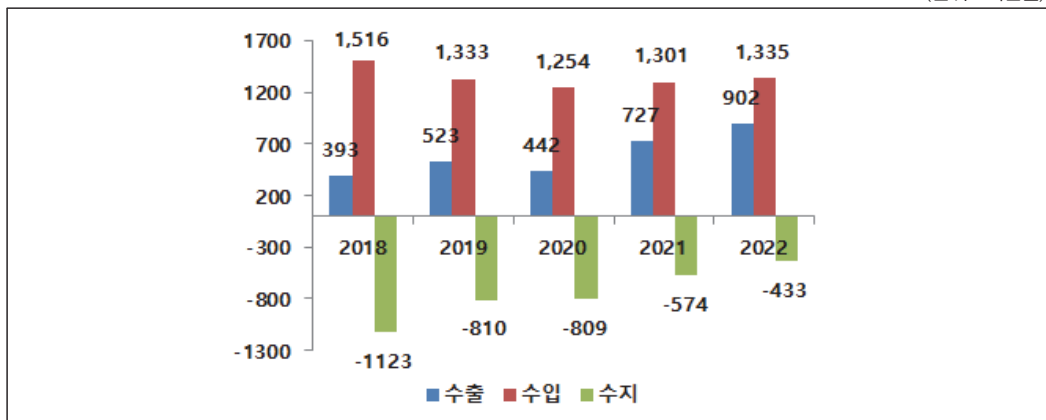
(단위: 백만불,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수출	전체	2,380	2,505	2,306	2,818	3,149	2,632
	대 중국	393	523	442	727	902	597
	비중	16.5	20.9	19.2	25.8	28.6	22.2
수입	전체	6,125	5,794	5,621	6,182	6,959	6,136
	대 중국	1,516	1,333	1,254	1,301	1,335	1,348
	비중	24.8	23.0	22.3	21.0	19.2	22.0
무역수지	전체	-3,746	-3,289	-3,296	-3,364	-3,810	-3,501
	대 중국	-1,123	-810	-809	-574	-433	-750
	비중	30	24.6	24.5	17.1	11.4	21.5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대 중국 수산물 무역수지】

(단위: 백만불)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 수산물 수출입 주요 국가

1) 수산물 주요 10대 수출국

- 2022년 금액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주요 5대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태국으로 5개국의 수산물 수출액 비중은 전체의 74.7%(물량 기준 76.0%)
 - 우리나라 제1의 수산물 수출국은 중국으로 지난해 수출금액 9억 223만 달러(물량 38만 톤)로 전체 수출액의 28.6%(물량 기준 41.0%) 비중
- 중국과 프랑스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뚜렷하며, 일본은 감소. 이외 국가들은 10% 이내에서 증가추세에 있음

【수산물 주요 10대 수출국】

(단위: 톤, 만불, %)

구 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2022)	연평균 증가율(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14,242	230,554	812,835	281,748	926,054	314,954	100.0	16.9
중국	125,573	44,241	279,332	72,649	380,120	90,223	28.6	19.5
일본	109,723	65,877	118,036	63,475	109,292	63,216	20.1	-1.0
미국	26,772	31,405	32,643	39,405	32,411	42,516	13.5	7.9
베트남	68,287	15,131	86,946	17,712	85,778	21,519	6.8	9.2
태국	112,824	17,091	90,606	14,202	95,927	17,913	5.7	1.2
프랑스	2,999	3,687	5,050	6,650	4,489	7,147	2.3	18.0
홍콩	3,127	5,959	2,587	5,454	3,056	6,847	2.2	3.5
대만	9,728	5,675	7,746	5,816	7,410	6,799	2.2	4.6
이탈리아	5,991	3,463	7,894	5,296	5,395	4,825	1.5	8.6
러시아	5,760	3,646	6,542	5,348	6,591	4,807	1.5	7.2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 수산물 주요 10대 수입국

- 2022년 금액 기준, 수산물 주요 5대 수입국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으로 5개국의 수입 비중은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65.7%를 차지(물량 기준 26.0%)
 - 수입물량 기준에서는 인도와 호주가 절대적인 수산물 수입국임. 물량기준 수산물 수입의 절대적 품목은 소금(천일염, HS 2501-00-1020)으로 '22년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 수입물량(644만 톤)의 73.4%(473만 톤)를 차지하고 있음

- 수산물 주요 10개국 모두 연평균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러시아와 대만의 연평균증가율이 10%를 상회

【수산물 주요 10대 수입국】

(단위: 톤, 만불, %)

구 분	2020		2021		2022		비중(금액) (2022)	연평균 증가율(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5,518,025	562,115	6,374,806	618,243	6,443,319	695,864	100.0	11.3
러시아	312,753	92,607	489,709	121,983	546,314	142,273	20.4	11.3
중국	773,670	125,439	902,027	130,088	799,107	133,591	19.2	1.6
베트남	172,325	75,473	173,485	80,839	181,858	94,030	13.5	5.6
노르웨이	74,212	43,091	93,888	57,597	84,030	61,322	8.8	9.2
미국	74,933	23,875	73,900	25,163	64,933	26,411	3.8	2.6
페루	67,618	20,379	64,023	16,541	59,698	22,673	3.3	2.7
일본	30,218	13,410	32,460	17,025	38,294	19,505	2.8	9.8
칠레	62,382	14,931	59,290	11,981	61,035	17,566	2.5	4.1
태국	24,288	15,410	27,542	19,564	23,911	17,435	2.5	3.1
대만	23,999	7,405	31,224	12,967	25,128	12,165	1.7	13.2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3. 수산물 수출입 품목

1) 수출입 수산물 형태

- 수출 수산물의 주 형태는 냉동으로 2022년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53.4%(16억 8,193만 달러)
- 물량 기준, 전체 수산물 수출물량의 74.3%(68만 8,445톤)
- 냉동과 함께 기타조제 형태 역시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21.4%(6억 7,467만 달러) 비중(물량기준 5.3%)
- 기타조제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 제1의 품목인 김 중 조미김이 주요 품목

【수출 수산물 주요 형태】

(단위: 톤, 만불, %)

구 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2022)	연평균 증가율(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14,242	230,554	812,835	281,748	926,054	314,954	100.0	16.9
활	3,623	4,875	3,536	5,841	3,970	6,181	2.0	12.6
신선·냉장	27,483	25,110	24,560	21,490	22,968	24,604	7.8	-1.0
냉 동	399,885	96,343	579,978	135,373	688,445	168,193	53.4	32.1
훈 제	88	103	138	140	106	108	0.0	2.4
건 조	16,809	24,076	17,516	25,566	19,230	27,256	8.7	6.4
염장·염수장	12,922	2,311	14,632	3,584	19,366	3,406	1.1	21.4
이외기타	102,227	11,485	116,390	11,923	116,197	11,864	3.8	1.6
밀폐용기에넣은것	6,812	5,213	7,204	5,624	6,767	5,875	1.9	6.2
기타조제	44,392	61,038	48,881	72,206	49,006	67,467	21.4	5.1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수입 수산물의 주 형태는 수출과 같은 냉동으로 2022년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52.8% (36억 7,732만 달러)

- 전체 수산물 수입물량의 19.5%(125만 7,165톤) 차지

【수입 수산물 주요 형태】

(단위: 톤, 만불, %)

구 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2022)	연평균 증가율(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5,518,025	562,115	6,374,806	618,243	6,443,319	695,864	100.0	11.3
활	32,040	33,093	31,697	31,741	32,796	41,438	6.0	11.9
신선·냉장	122,275	100,425	125,148	120,415	115,854	120,267	17.3	9.4
냉 동	1,113,790	306,048	1,219,846	333,531	1,257,165	367,732	52.8	9.6
훈 제	1,458	1,321	1,344	1,195	1,906	1,723	0.2	14.2
건 조	16,513	15,348	12,911	13,596	12,668	14,046	2.0	-4.3
염장·염수장	29,013	3,506	29,759	4,130	29,286	4,134	0.6	8.6
이외기타	4,084,007	34,879	4,831,065	45,034	4,871,038	69,381	10.0	41.0
밀폐용기에넣은것	10,028	4,502	10,153	4,855	12,512	5,800	0.8	13.5
기타조제	108,901	62,992	112,882	3,745	110,095	71,343	10.3	6.4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 수산물 수출입 주요 품목

■ 2022년 금액기준, 우리나라 수출 수산물 상위 품목은 김과 참치, 지난해 두 품목이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

- 김 : 금액 비중 20.8%(6억 5,570만 달러), 물량 비중 3.2%(3만 471톤)
- 참치 : 금액 비중 19.1%(6억 248만 달러), 물량 비중 18.6%(17만 2,657톤)

【우리나라 상위 15대 수출 수산물】

(단위: 톤, 만불, %)

구 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2022)	연평균 증가율(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산물 전체	614,242	230,554	812,835	281,748	926,054	314,954	100.0	16.9
김	24,960	60,042	29,545	69,291	30,471	65,570	20.8	4.5
참치	216,022	52,797	177,225	57,921	172,657	60,248	19.1	6.8
명태	5,439	1,420	139,952	15,195	208,014	25,975	8.2	327.7
대구	19,745	5,648	30,484	9,823	28,184	12,589	4.0	49.3
기타어류	25,185	9,283	26,328	8,864	38,954	11,027	3.5	9.0
어류가공품	22,281	10,349	22,110	10,656	20,881	9,814	3.1	-2.6
기타계	2,561	10,127	1,288	6,592	2,069	9,122	2.9	-5.1
이빨고기	1,735	3,070	2,191	4,516	2,945	9,082	2.9	72.0
연어	3,879	1,038	19,021	4,111	36,853	8,277	2.6	182.4
굴	9,457	7,148	10,127	8,007	9,859	7,960	2.5	5.5
전복	1,914	5,187	2,136	5,443	2,580	6,519	2.1	12.1
삼치	11,605	3,455	20,162	4,863	17,785	5,850	1.9	30.1
오징어	7,172	3,399	21,727	7,430	15,797	5,381	1.7	25.8
넙치	4,781	4,311	4,537	5,498	3,571	5,011	1.6	7.8
기타수산물	53,363	4,459	54,884	4,753	55,691	4,930	1.6	5.1

주: 상위 수출품목 : 2022년 금액 기준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한편 수입의 경우, 수출 수산물이 김, 참치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된 반면 수입 수산물은 금액 기준 10% 비중 이내에서 다수품목으로 분산

■ 우리나라 주요 수입품목은 명태와 연어로 2022년 두 품목이 전체 수입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8.6%와 8.4%

【우리나라 상위 15대 수입 수산물】

(단위: 톤, 만불, %)

구 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2022)	연평균 증가율(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산물 전체	5,518,025	562,115	6,374,806	618,243	6,443,319	695,864	100.0	11.3
명태	209,729	40,776	321,586	50,092	377,282	60,125	8.6	21.4
연어	42,609	35,770	62,730	47,621	76,566	58,597	8.4	28.0
새우살	32,872	27,509	36,962	33,092	49,944	46,597	6.7	30.1
오징어	155,577	46,285	134,225	35,040	136,993	39,145	5.6	-8.0
새우	65,221	36,895	65,502	41,404	55,536	38,976	5.6	2.8
기타어류	168,988	36,212	184,131	36,756	185,180	38,840	5.6	3.6
참치	21,314	21,382	21,985	23,683	24,421	31,620	4.5	21.6
낙지	31,772	26,198	32,065	28,273	31,350	29,061	4.2	5.3
소금	3,985,263	16,509	4,726,315	21,574	4,733,722	23,264	3.3	18.7
대게	8,390	17,101	7,768	23,124	9,587	22,067	3.2	13.6
기타게	11,801	23,973	9,153	22,581	9,228	20,468	2.9	-7.6
주꾸미	29,952	18,257	31,395	20,977	29,837	20,418	2.9	5.8
어란	27,847	9,129	26,988	11,324	25,698	13,451	1.9	21.4
바다가재	4,399	9,080	4,448	11,091	4,510	12,433	1.8	17.0
기타수산물	55,205	9,052	69,587	12,403	67,019	12,308	1.8	16.6

주: 상위 수입품목 : 2022년 금액 기준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Ⅳ 수산업 내외부 환경부문

1. FTA

■ 2023년 9월 기준, 우리나라 FTA 협상 발효 21건 59개국

- 가장 최근 FTA 체결국은 인도네시아로 2023.1월 발효

■ 현재 협상 중인 FTA는 10건

- 한중일, MERCOSUR(남미공동시장 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러시아,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한-에콰도르 SECA, 우즈베키스탄 STEP

【우리나라 FTA 현황('23.9.기준)】

상대국	협상개시	서명	발효
칠레	1999.12	2003.02	2004.04
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EFTA(4개국)	2005.01	2005.12	2006.09
아세안(10개국)	2005.02	2009.06(투자협정)	2009.09(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9.08	2010.01
EU(27개국)	2007.05	2010.06	2015.12.13.(전체)
페루	2009.03	2011.03	2011.08
미국	2006.06	2007.06	2012.3
튀르키예	2010.04	2012.08	2013.05
호주	2009.05	2014.08	2014.12
캐나다	2005.07	2014.09	2015.01
중국	2012.05	2015.06	2015.12
뉴질랜드	2009.06	2015.03	2015.12
베트남	2012.08	2015.05	2015.12
콜롬비아	2009.12	2013.02	2016.07
중미(5개국)	2015.06	2018.02	2021.03(전체)
영국	2017.02	2019.08	2021.01
RCEP	2012.11	2020.11	2022.02
이스라엘	2016.05	2021.05	2022.12
캄보디아	2020.07	2021.10	2022.12
인도네시아	2019.02	2020.12	2023.01

자료: FAT 포털(www.customs.go.kr)

■ 최근 수산업 관련 FTA 이슈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17.1) 이후, CPTPP*로 명칭 변경('17.11), 일본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11개국 참여로 '18년 12월 발효

*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정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와 정부조달수산물 조급금융 등의 모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무역협정
- 참여국(총 11개국) :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 가입연도 :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05) → 미국·호주·페루('08) → 베트남·말레이시아('10) → 멕시코·캐나다('12) → 일본('13) → 미국탈퇴('17)

【CPTPP 추진 일지】

- '13. 11. : 한국정부, CPTPP 전신인 TPP 협정 공식 관심표명
- '17. 01. : 미국, TPP 탈퇴
- '17. 11. : 미국제외 11개국, CPTPP로 명칭 변경
- '18. 03. : 일본 주도 11개국 참여한 CPTPP 출범
- '18. 12. : CPTPP 발효
- '21. 09. : 중국과 대만 가입 공식 신청
- '21. 12. : 한국, 가입 추진 공식화(홍남기 부총리, CPTPP 가입신청 시사)
- '23년 현재 : 추진 중

■ 우리나라 CPTPP 가입 시, 가장 큰 이슈는 “수산물보조금 금지조항”

- CPTPP, 과잉어획상태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보조금 금지
-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측되는 금지 보조금은 어업용 석유류, 정책보험, 수산정책 금융 이차보전으로 보조금 폐지 시, 이는 어업경영비에 그대로 부담, 경영난 가중으로 어업경영체 줄도산 우려

2. 수산물 소비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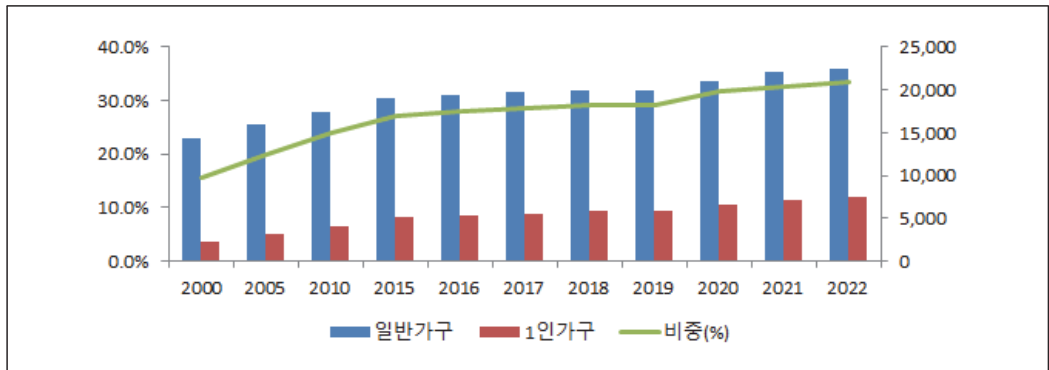
■ 2022년 1인 가구 수 750만 가구, 일반 가구 수의 33.5% 비중

■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추세

- 2000년 1인 가구 수는 일반 가구 수의 15.5% → 2022년 약 2배 증가

【1인가구 증가】

(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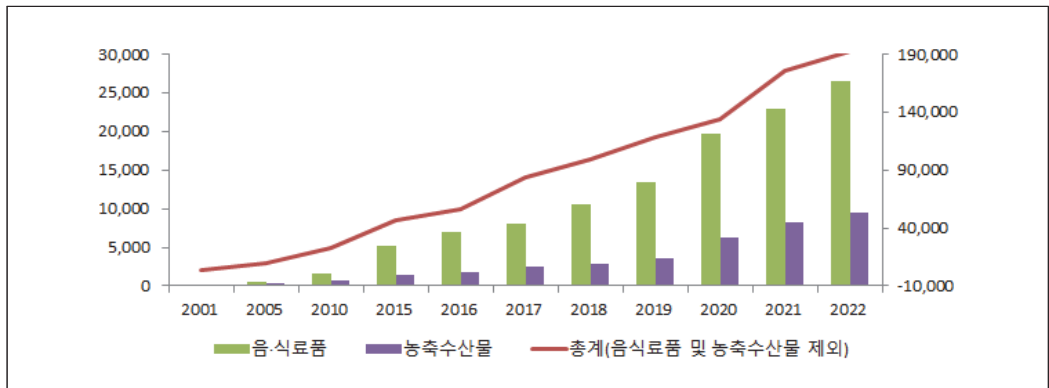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몰 거래량 대폭 증가

- 2001년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몰 거래금액 1.014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93배 증가한 9조 4,611억 원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 추이】

(단위: 천가구)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몰동향조사

3. 해양쓰레기

■ 우리나라 바다유입 해양쓰레기 연간 약 13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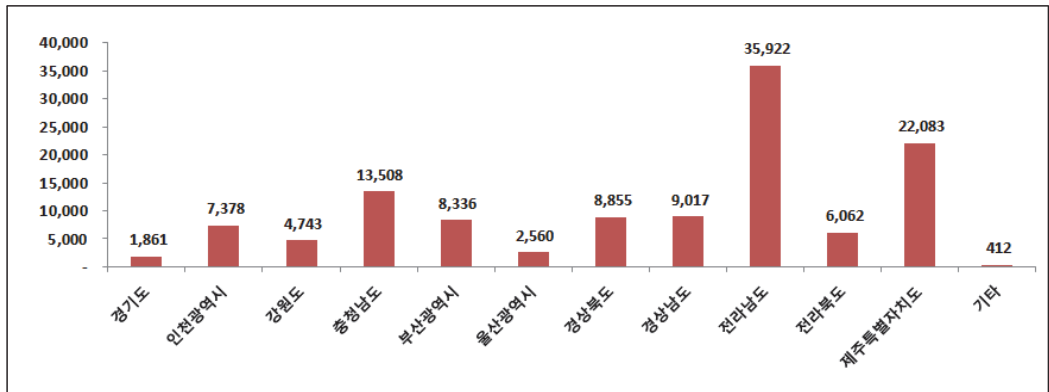
- 해안쓰레기 111,592톤(81%), 침적쓰레기 18,212톤(13%), 부유쓰레기 8,558톤(6%)
→ 해안쓰레기가 침적쓰레기에 비해 6.1배 많음

■ 2021년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2.1만 톤

- 지역별로 전남이 3만 5,922톤으로 가장 많음

【지역별 해양쓰레기 수거현황(2021)】

(단위: 톤)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3)

- 해양 쓰레기는 선박사고, 어업 생산성 저감, 바다 생물 폐사, 생물 서식지 파괴, 국가 간 갈등 유발, 관광자원의 질 저하, 수거/처리 비용 발생

4. 수산물 소비

■ 세계 수산물 공급 2025년까지 2013~2015년 평균보다 21.2% 증가

- 1인당 수산물 소비량도 7.9% 증가

■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2025년 10.1% 증가 예상

- 중국, 인도네시아의 1인당 수산물 소비 각각 19.5%, 12.6% 크게 증가 전망

【2025년 세계 수산물 공급 전망】

구 분		공 급			1인당 수산물 소비(kg)		
		2013-15 평균	2025 전망	대비(%)	2013-15 평균	2025 전망	대비(%)
세 계		146,648	177,679	21.2	20.2	21.6	7.9
주요 국가	미국	7,580	8,488	12.0	23.7	24.6	3.8
	EU	11,082	12,181	9.9	22.0	23.9	8.6
	일본	6,362	6,035	-5.1	50.2	49.1	-2.2
	중국	54,128	66,747	23.3	39.5	47.2	19.5
	대한민국	2,924	3,340	14.2	58.4	64.3	10.1
	인도네시아	8,896	11,206	26.0	35.0	39.4	12.6
	베트남	3,275	3,846	17.4	35.4	37.7	6.5

자료: OECD, FAO

5. 수산업 규모

■ 수산업 2030년까지 약 100조 원 산업으로 도약 전망

- 2016년 67.2조 원에서 2030년 약 100조 원의 산업으로 도약

■ 2030년,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 원, 어가소득 80백만 원, 수산업 신규일자리 4만 개 창출 전망

【수산업 규모 전망】

	2016	2022	2030	비고
수산업 전체 매출액	67.2조 원	80조 원	100조 원	연 2.9% 성장
어가소득	49백만 원	60백만 원	80백만 원	연 3.8% 성장
수산업 신규 일자라		13,000개	40,000개	2019년부터 매년 3,300개 창출

자료: 해양수산부(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참고문헌】

통계청 보도자료(2023.2.24.),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보도자료」
해양수산부(2019), 「수산업발전 2030 계획」

인터넷 사이트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온라인쇼핑몰동향조사

FAT 포털(www.customs.go.kr)

OECD

FAO

기후변화와 수산업 영향

박 영 진 책임연구원
(sinyo82@suhyup.co.kr)

목 차

요 약	37
I.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해양·수산 변화	41
II.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 및 피해 사례	48
III. 정부의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현황	52
IV.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영향 및 과제	55

요 약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해양·수산 변화

- 해수면 변화 :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지난 33년(1989년~2021년)동안 평균 9.9cm 상승
- 수온 변화 :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수온은 최근 55년간(1968~2022) 약 1.36℃ 상승, 이는 전 지구 평균(0.52℃) 대비 약 2.5배 이상 높은 수준
- 해상기온 변화 : 평년보다 동해(2.5℃), 황해(1.5℃), 동중국해(0.9℃)가 해상기온이 높았으며, 동해가 가장 높았음
- 해역별 어획량 변화
 - 1980년대 대표어종(취치류, 정어리, 명태) 감소 및 현재 대표어종(멸치, 고등어류, 살오징어) 증감 등 1980년대 이후 장기 어획량 변동 및 감소 추세
 - 한류성 어종 어획량은 감소 추세이며, 난류성 어종 어획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임
 - 살오징어 : 1990년대 동해 남부해역, 대화퇴 해역에서 어획수준 높았으나 2010년대 이후 서해, 러시아 수역 등으로 어장 확대
 - 방어 : 1990년대 평균 약 5천톤 어획수준이었으나 2008년 1.2만톤으로 감소, 남해 어획비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 동해 어획비율 증가
 - 참조기 : 2000년 서남해 외해역 먼바다에서 출현빈도가 높았으나 최근 남서해역으로 이동
- 연근해 해양생태계 생산성 감소 : 우리나라 해역 평균 기초생산력, 식물플랑크톤 중 초미세식물 플랑크톤은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로 해양생태계의 생산성 감소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 및 피해 사례

-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
 -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의 심각성에 대한 어업인 인지 : 88.6%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어획 및 생산 감소(21.1%)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이 수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 영향 있다(87.6%), 매우 심각(39.0%)
 - 수산업이 탄소배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 많다(44.8%), 적다(8.6%)
 - 어업활동 시,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고려 : 조금 신경이 쓰이나 고려하지 않는다(32.0%)
 -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업종별 탄소배출 저감 방법
 - 연근해어선 : 에너지 절감형 내연기관(엔진)으로의 교체(41.3%)
 - 양식어업 :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로의 교체(35.3%)
 - 마을어업 : 어업인 인식전환 교육(33.3%)
 - 수산업·어촌 탄소배출 저감 방해요인 : 많은 비용(20.4%), 탄소 저감 방법을 알지 못함(14.0%) 등

○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인 피해 사례

- 최근 고수온, 저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대량폐사 피해가 발생, 특히 고수온 피해 가중

【최근 주요 양식피해 현황】

발생연도	구 분	피해지역	피해어가	피해품종	피해액/피해사유
2021	고수온	•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여수, 완도, 신안, 고흥	598어가	• 어류 17,970천마리 • 굴·홍합 697줄	• 217억원
		• 전남지역(여수,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3437어가	• 김, 미역, 새꼬막	• 95억원
	고수온	• 전남지역 (화정면, 월호도 인근 양식장)	13어가	• 조피볼락 등 1,600천마리	• 10억원
	고수온	• 경상남도	213어가	• 멸치	• 117억원 (멸치 개체수 감소)
2022	고수온	• 전남 신안 흑산지역	64어가	• 조피볼락 851천마리	• 9억 56백만원
	고수온	• 경남지역 (사천만, 강진만, 도내 해역)	-	• 멸치알	• 연안에 산란된 멸치알 부화되지 않아 개체수 감소
	고수온	• 제주	26건 (신고건수)	-	-
	저수온	• 전남 여수(돌산, 화정면 등)	64어가	• 340마리 양식물고기	-
2023	고수온	• 전남 여수 (삼산면, 남면, 화정면, 돌산 등)	-	• 105만 4천마리 (조피볼락)	• 15억원
	고수온	• 전남 완도	30어가	• 40만 8천 마리 (넙치 27만 2천마리 등)	• 31억 1천만
	저수온	• 전남 여수, 경남 남해 지역	61어가	• 어류(돔류, 조기류) 192만 6천마리	• 4.8억 8백만원

주: 본 자료는 관련기사, 자료를 참고해 종합정리한 것으로 개별 피해어가, 피해품종, 피해액 내용이 중복될 수 있음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비즈니스포스트(2023.3.16), 연어는 죽고 멸치는 줄고, 북극해 넘어 한국에도 바다폭염 몰려온다

남해안신문(2023.9.19), 한해 저수온·고수온 연이은 직격탄, 여수 앞바다, 관찰나

news1(2023.8.26), '고수온 영향' 여수 양식장 우럭 떼죽음에 어민들 '망연자실'

정부의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현황

○ 해양수산부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

- 비전 :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
- 목표 :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 저감('18년 대비),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재산·인명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 전략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온실가스 흡수 및 전환,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기후위기대응 이행력 확보

-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강화대책(2023~2025)’
 - 비전 :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
 - 목표 :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 정책 : 과학적 기후 감시 예측 및 적응 기반 고도화, 기후재난·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모든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
 - 1990년대 제정 당시 이상조류, 적조현상의 두 가지 재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하였으나 현재 어업재해 분야(이상조류·이상수온, 적조현상, 태풍·해일 등)가 다양해지며 확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태풍, 해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을 보상해주는 보험
 - 총 28개 품목(본사업 17개, 전국 대상·시범사업 11개, 일정기간 제한지역 대상) 실시
 -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 사범사업 품목(11) : 명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최근 5년간(2018~2022) 약 53백 어가에 2천 5백억원 지급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영향 및 과제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영향
 - 기후변화로 인해 해역별 어획량 변화, 어종변화 발생되며, 해양생태계 생산성 감소 등 다양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 수산업 생산·유통·소비의 구조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다수의 어업재해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를 증가와 어업인 보험료 증가 뿐만 아니라 재해보험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요인으로도 작용될 우려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과제
 - 해수면 상승, 표층수온 상승, 평년보다 높은 해상기온 등 수산업 환경변화 대응 필요
 - ☞ (정부)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강화 및 장기적 어업 생산성 저하 품종에 대해 어업인 피해대책 마련
 - ☞ (정부) 기후변화 적응품종과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인의 기후위기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업소득 창출 지원
 - ☞ (정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연근해 관측 강화 및 기후변화 실태분석 기초조사 강화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품종별·업종별·해역별)기후변화 대응 필요
 - ☞ (정부) 어업인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정책 우선적 지원 필요
 - 연근해어선 : 에너지 절감형 내연기관(엔진)으로의 교체(41.3%)
 - 양식어업 :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로의 교체(35.3%)
 - 마을어업 : 어업인 인식전환 교육(33.3%)
 - ☞ (수협) 어업인 대상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실시
 - ☞ (어업인)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자발적 참여
- 현재 기관별로 산재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해 어업인 인지 필요
 - ☞ (정부) 어업인 기후변화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
 - 어업현장에서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정보제공 및 알림서비스
 -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장 피해발생 사전 대비요령 등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
 - ☞ (수협) 기후변화 대응 통합 매뉴얼 등 회원조합을 통한 자료 배포 등 정보제공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가입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양식 어업인 보험가입 지원
 - ☞ (정부) 우리나라 전체 76개 양식품목 중에서 현재 보험대상 품목인 28개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품목에 대한 대상품목 확대 필요
 - ☞ (정부·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해 어업인 의견청취를 통한 보장범위 개선, 어업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특약사항 마련 등 어업인 가입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 ☞ (어업인) 기존 재해보험 특약사항 미가입 어업인들의 가입 활성화, 적극적인 가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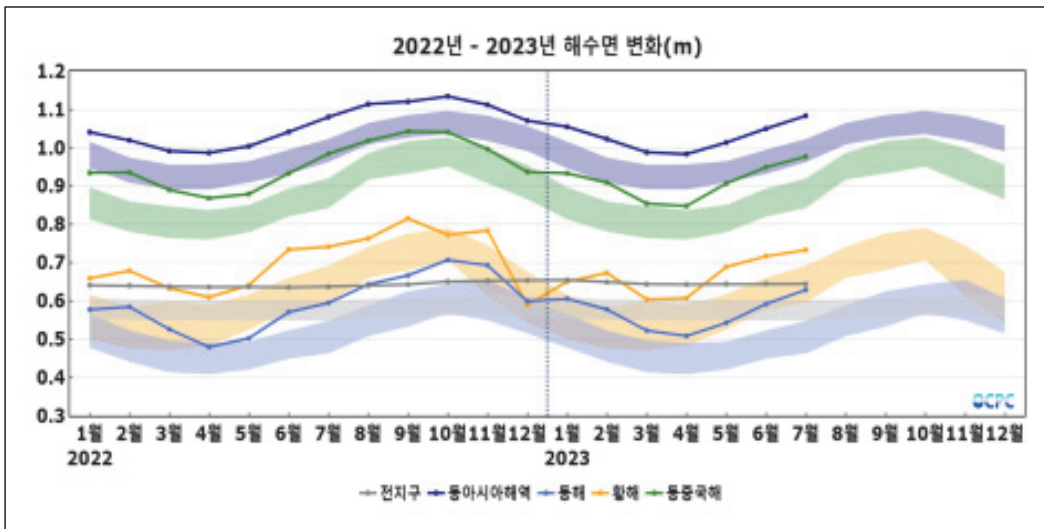
I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해양·수산 변화

1. 해수면 변화

▶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최근 30년간(1993년~2023년 7월 기준) 평년(57.5 ± 2.7)보다 6.9cm 높았으며, 최근 30년간 가장 높았음

- 동아시아해역 해수면은 평년보다 9.1cm 높았으며, 최근 30년간 가장 높았음
- 동해, 황해, 동중국해 해수면은 평년*보다 동해(12.4cm), 황해(8.9cm), 동중국해(9.6cm) 높았으며, 동해 해수면은 최근 30년 중에서 가장 높았음

* 평년 해수면 : 동해(50.5 ± 4.2 cm), 황해(64.4 ± 4.9 cm), 동중국해(88.1 ± 3.9 cm)



자료: 해양기후예측센터(2023년 9월 11일 검색 기준)

▶ 21세기 후반 지구 평균 해수면은 0.28m~1.88m 상승 전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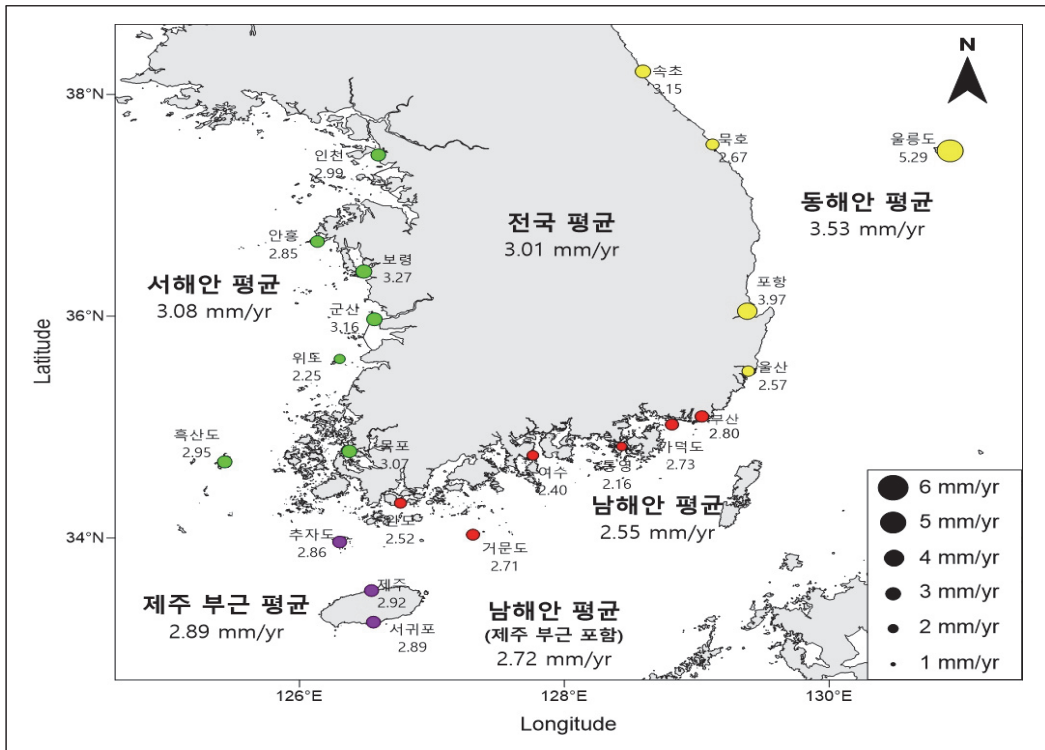
- SSP1-1.9 적용시 0.28~0.55m 상승, SSP-4.5 적용시 0.44~0.76m 상승, SSP-8.5 적용시 0.98~1.88m 상승 전망

1) 환경부(2023,6), 제3차(2023~2025)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지난 33년(1989년~2021년)동안 평균 9.9cm 상승함

- 3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1mm씩 높아짐
- 연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3.53mm), 서해(3.08mm), 남해(2.55mm)로 동해안이 가장 높았음

【최근 33년간(1989~2021) 해수면 상승률(21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2022.12.20), 우리나라 해수면높이 지난 33년동안 평균 9.9cm 높아져

▶ 우리나라 주변해역 평균 해수면 높이는 고탄소 시나리오(SSP 5-8.5, 온실가스 저감 없이 배출)의 경우, 2050년 25cm, 2100년 82cm 상승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반면,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현)의 경우, 해수면 높이는 2050년 20cm, 2100년 47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됨²⁾

2) SSP 5-8.5 :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위주 무분별한 개발 확대로 가정
 SSP 1-2.6 :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가정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3.10.), 신(新)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전망

【시나리오별 우리 주변해역 평균 해수면 전망】

구 분	시나리오	황해	대한해협	동해	우리 주변해역 평균
2100년까지 연평균 상승률 (mm/년)	SSP 1-2.6	5.33	5.47	5.49	5.44
	SSP 5-8.5	9.39	9.57	9.56	9.51
2015년~2100년 상승폭 (cm)	SSP 1-2.6	45.8	47.1	47.2	46.8
	SSP 5-8.5	80.8	82.3	82.2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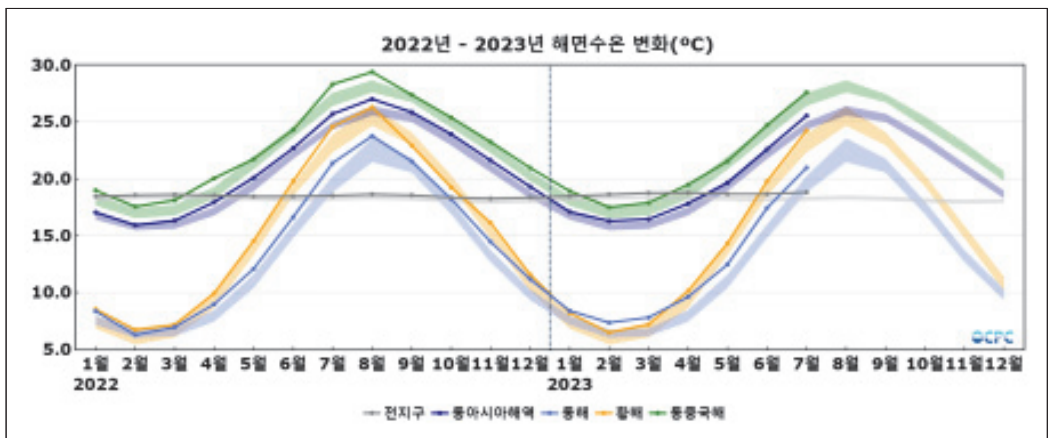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3.10.), 신(新)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전망 내용에서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2. 수온 변화

■ 전지구 평균 해면수온³⁾은 최근 30년간(1993년~2023년 7월 기준) 평년($18.3 \pm 0.2^\circ\text{C}$)보다 0.6°C 높았으며, 최근 30년간 가장 높았음

- 동아시아해역은 평년보다 0.9°C 높았으며, 동해, 황해연안을 따라 상승이 두드러짐
- 동해는 평년*보다 1.4°C 높았고, 1982~2023년(7월) 중 상위 3위를 기록했으며, 황해(1.1°C)와 동중국해(0.6°C)는 평년보다 높았음

* 평년 해면수온 : 동해($19.5 \pm 0.7^\circ\text{C}$), 황해($23.1 \pm 0.8^\circ\text{C}$), 동중국해($27.0 \pm 0.6^\circ\tex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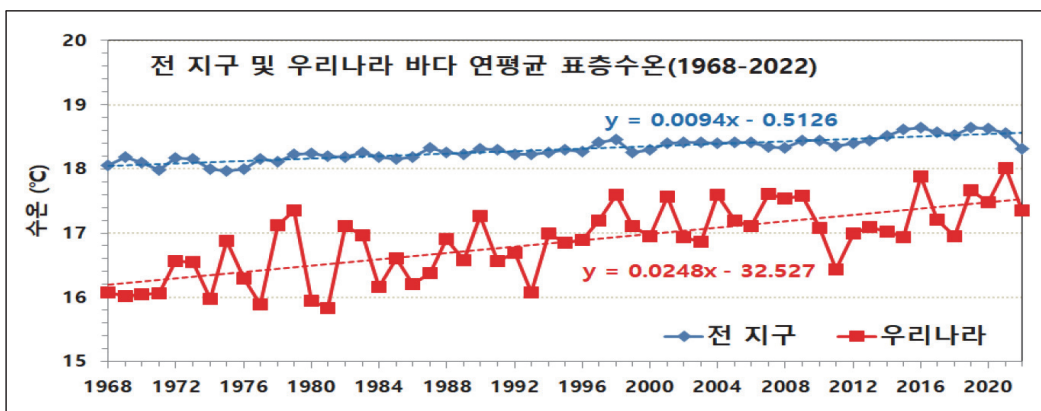


자료: 해양기후예측센터(2023년 9월 11일 검색 기준)

- 3) 해면수온은 보통 수심 1m 이내 수온이며, 보통 25km~100km 공간규모의 강한 해면수온 차이는 대기상승 또는 하강기류를 만들어내며, 해양~대기 경계층과 상승의 자유대기와의 교환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태풍 등 각종 기상재해 빈도와 강도 변화를 유발함, 또한 해면수온 상승은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고,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해양생물 생존에 영향을 미침(자료: 해양기후예측센터)

- ▶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수온은 최근 55년간(1968~2022) 약 1.36℃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 지구 평균(0.52℃) 대비 약 2.5배 이상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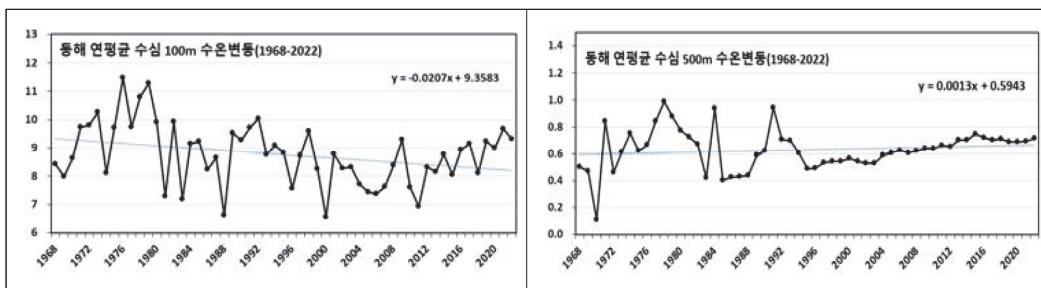
- 해역별 표층수온은 동해 1.82℃ 상승, 서해 1.19℃ 상승, 남해 1.08℃ 상승하였으며, 동해가 가장 높았고 남해가 가장 낮았음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 동해의 경우, 중층(100m) 수온은 1.13℃ 감소, 저층(500m) 수온은 0.07℃ 증가하였으며, 두 층 사이 수온차는 매년 0.0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최근 55년간(1968~2022) 동해 연평균 중저층 수온(100m, 500m) 장기변동】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 ▶ 연근해 수온 상승으로 멸치 서식지는 가을·봄에는 증가하고, 여름·가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고등어는 서식지가 북상하고 동중국해로 남하하는 시기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⁴⁾

4) 환경부(2023,6), 제3차(2023~2025)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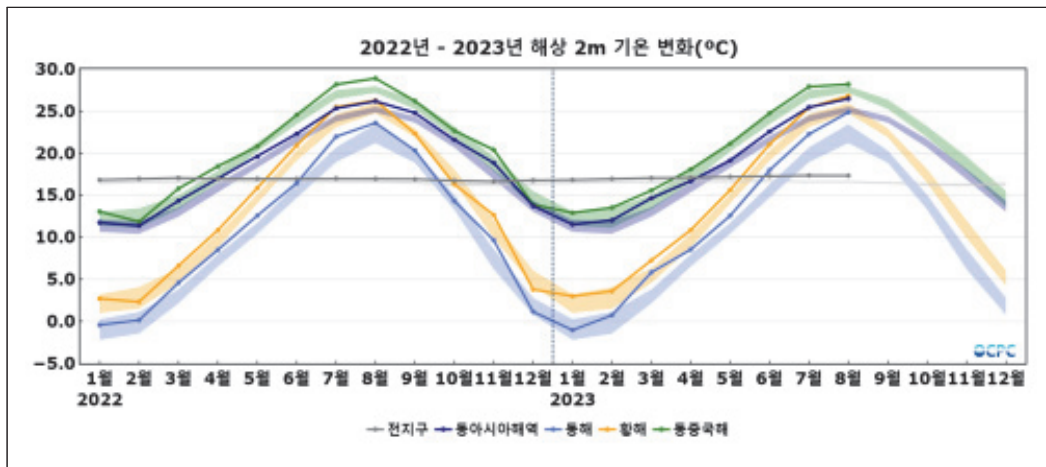
3. 해수기온⁵⁾ 변화

- ▶ 전지구 평균 해수기온은 최근 30년간(1993년~2023년 7월 기준) 평년($16.6 \pm 0.1^{\circ}\text{C}$)보다 0.8°C 높았음

- 동아시아해역 해수기온은 평년보다 1.3°C 높았음

- ▶ 해수기온은 평년*보다 동해(2.5°C), 황해(1.5°C), 동중국해(0.9°C)가 높았으며, 동해가 가장 높았음

* 평년 해수기온 : 동해($19.8 \pm 0.9^{\circ}\text{C}$), 황해($23.9 \pm 0.8^{\circ}\text{C}$), 동중국해($27.0 \pm 0.5^{\circ}\text{C}$)



자료: 해양기후예측센터(2023년 9월 11일 검측 기준)

4. 해역별 어획량·어종 변화 및 연근해 해양생태계 생산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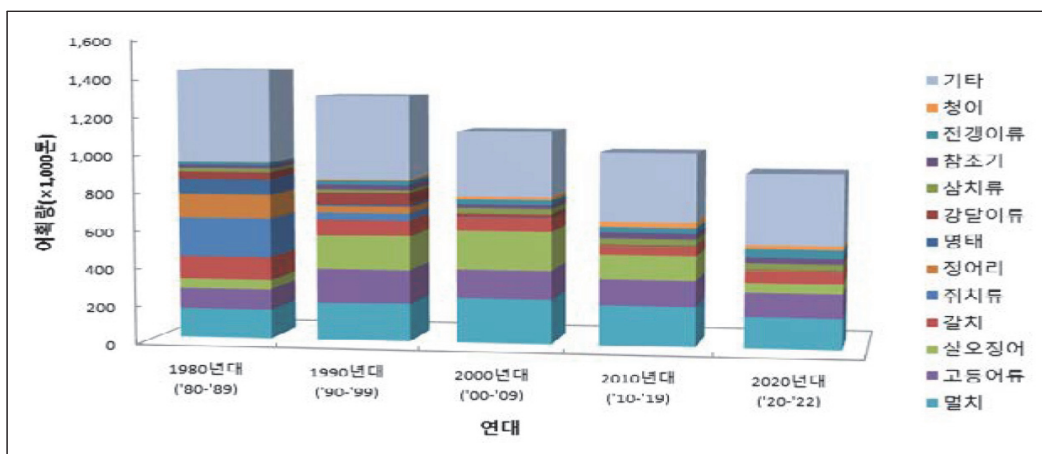
- ▶ 1980년대 대표어종(쥐치류, 정어리, 명태) 감소 및 현재 대표어종(멸치, 고등어류, 살오징어) 증감 등 1980년대 이후 장기 어획량 변동 및 감소 추세

-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0년대 151만톤에서 2020년대(2020~2022) 92만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5) 해수기온은 해면으로부터 2m 높이로 해면수온과의 차이, 해상풍 강도에 따라 해양과 대기의 경계에서 열, 운동량, 수증기, 기체 성분과의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임(자료: 해양기후예측센터)

- 멸치, 고등어, 살오징어의 경우, 1980년대~2000년대* 증가 추세이나 현재감소 추세
* 1980년대(31.5만톤), 1990년대(56.3만톤), 2000년대(59.6만톤), 2010년대(47.8만톤), 2020년대(34.4만톤)
- 쥐치류, 정어리, 명태의 경우 1980년대 41.9만톤이었으나 현재 5천톤 수준으로 감소 추세

【연근해 주요 어종 변화】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 해역별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를 살펴보면, 한류성 어종 어획량은 감소 추세이며, 난류성 어종 어획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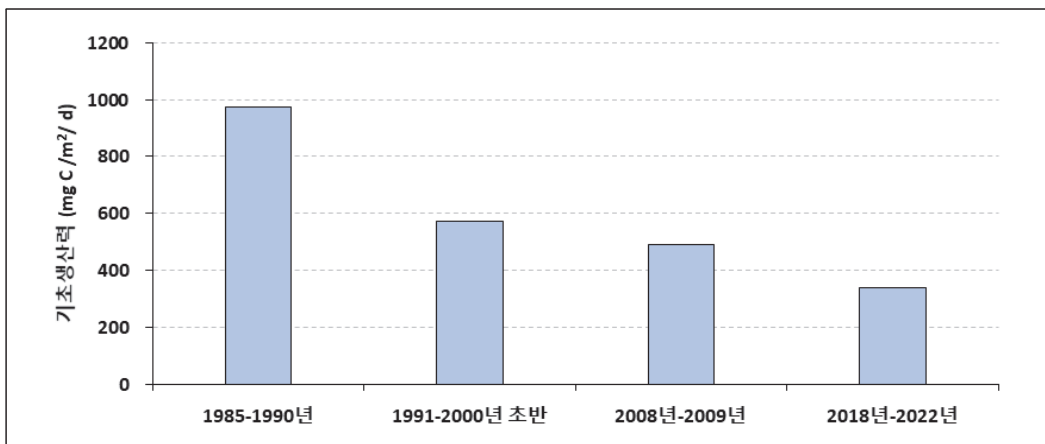
- 살오징어 : 1990년대 동해 남부해역, 대화도 해역에서 어획수준 높았으나 2010년대 이후 서해, 러시아 수역 등으로 어장 확대
 - 주 조업지역인 동해 남부 해역에서 살오징어 어장형성 조건 등이 악화되었으나 서해해역에서 2015년부터 어획량이 증가
- 방어 : 1990년대 평균 약 5천톤 어획수준이었으나 2008년 1.2만톤으로 감소하였으며, 남해 어획비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 동해 어획비율은 증가
 - 2015년 남해는 전체 어획량의 약 75% 차지하였으나 최근 5년간(2018~2022) 평균 약 49% 감소, 반면 동해는 1990년 및 2000년대 평균 20%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40% 이상 차지

- 참조기 : 2000년 서남해 외해역 먼바다에서 출현빈도가 높았으나 최근 남서해역으로 이동
- 대표 아열대 어종인 자리돔의 경우 최근 10년간(2013~2022) 출현하였으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높은 출현 비율로 나타남
 - 이외에도 주로 출현하고 있는 아열대어종은 자리돔, 줄도화돔, 파랑돔, 세줄얼게비늘, 가시망둑, 황놀래기, 그물코쥐치 등임

▶ **우리나라 해역 평균 기초생산력, 식물플랑크톤 중 초미세식물플랑크톤은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함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생산성 감소**

- 우리나라 해역 평균 기초생산력⁶⁾(339 mg C/m²/day), 식물플랑크톤 중 초미세식물플랑크톤 (크기 2μm 이하) 비율은 전체의 64%로 분석됨, 이는 10년 전에 비해 60%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초미세식물플랑크톤은 13%p 증가⁷⁾
 - 이는 기후변화로 표층수온이 상승해 성층강화(수온 등 급격한 변화로 강한 밀도 변화층이 형성되는 것) 현상으로 저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 공급이 제한됨
 - 또한, 표층에서 크기가 큰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 및 성장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초미세플랑크톤이 우위를 점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식물플랑크톤 소형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기초생산력 중장기 변동】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2.21),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생태계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6) 기초생산력 : 식물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유기화합물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해양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
 7) 수산과학원의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2018~2022)' 연구사업 결과

Ⅱ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 및 피해 사례

1.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⁸⁾

- ▶ 어업인의 88.6%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어선어업(91.3%)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마을어업(88.9%), 양식어업(80.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은 어업인일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함
-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획 및 생산 감소(21.1%)’를 가장 높게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어종변화 및 해파리·적조 등 증가’ 및 ‘조업방해 물질 증가’가 각각 16.9%이었으며, ‘태풍·풍랑 등 증가’ 15.3% 등의 순임
- ▶ 또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의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이 87.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39.0%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함
- ▶ 반대로, 수산업이 탄소배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4.8%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8.6% 적다고 응답함
 - 업종별로는 어선어업(49.3%)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양식어업(40.0%), 마을어업(33.3%)의 순으로 나타남
- ▶ 어업활동 시,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 등에 대해 ‘조금 신경이 쓰이나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0%로 많았음

8)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부문은 본원에서 수행한 2021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연구용역인 ‘탄소중립시대, 수산업 분야 정책지원 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설문조사는 어업인 및 어업관련 종사자(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어업인 56.1%, 수산업관계자 43.9%로 어업인이 과반수 이상임. 본 연구의 작성 내용은 어업인 응답결과임

- ▶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업종별 탄소배출 저감 방법은 연근해어선의 경우 '에너지 절감형 내연기관(엔진)으로의 교체(41.3%)', 양식어업의 경우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로의 교체(35.3%), 마을어업의 경우 '어업인 인식전환 교육(33.3%)'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음
- ▶ 그러나 수산업·어촌의 탄소배출 저감 방해 요인으로 '많은 비용(20.4%)'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탄소 저감 방법을 알지 못함(14.0%)' 등의 순으로 응답함

2.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인 피해 사례

- ▶ 최근 고수온, 저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대량폐사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고수온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여름철에는 고수온, 겨울철에는 저수온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연안과 내만의 양식장을 중심으로 양식생물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 만약, 여름철에 고수온이 발생할 경우, 양식장은 한계수온이 상회하게 되어 생체내 대사와 면역력 등 생리기능 악화로 인해 질병 노출이 쉬운 상태가 되어 폐사함
 - 특히, 전복, 우럭 등은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으로 해상가두리 대부분 양식장은 내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온변화에 취약하고,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임)

【최근 주요 양식피해 현황】

발생연도	구 분	피해지역	피해어가	피해품종	피해액/피해사유
2021	고수온	•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여수, 완도, 신안, 고흥	598어가	• 어류 17,970천마리 • 굴·홍합 697줄	• 217억원
		• 전남지역(여수,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3437어가	• 김, 미역, 새꼬막	• 95억원
	고수온	• 전남지역 (화정면, 월호도 인근 양식장)	13어가	• 조피볼락 등 1,600천마리	• 10억원
	고수온	• 경상남도	213어가	• 멸치	• 117억원 (멸치 개체수 감소)

9) 국립수산물과학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발생연도	구 분	피해지역	피해어가	피해품종	피해액/피해사유
2022	고수온	• 전남 신안 흑산지역	64어가	• 조피볼락 851천마리	• 9억 56백만원
	고수온	• 경남지역 (사천만, 강진만, 도내 해역)	-	• 멸치알	• 연안에 산란된 멸치알 부화되지 않아 개체수 감소
	고수온	• 제주	26건 (신고건수)	-	-
	저수온	• 전남 여수(돌산, 화정면 등)	64어가	• 340마리 양식물고기	-
2023	고수온	• 전남 여수 (삼산면, 남면, 화정면, 돌산 등)	-	• 105만 4천마리 (조피볼락)	• 15억원
	고수온	• 전남 완도	30어가	• 40만 8천 마리 (넙치 27만 2천마리 등)	• 31억 1천만
	저수온	• 전남 여수, 경남 남해 지역	61어가	• 어류(동류, 조기류) 192만 6천마리	• 4.8억 8백만원

주: 본 자료는 관련기사, 자료를 참고해 종합정리한 것으로 건별 피해어가, 피해품종, 피해액 내용이 중복될 수 있음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비즈니스포스트(2023.3.16), 연어는 죽고 멸치는 줄고, 북극해 넘어 한국에도 바다폭염 물려온다
 남해안신문(2023.9.19), 한해 저수온·고수온 연이은 직격탄, 여수 앞바다, 관찰나
 news1(2023.8.26), '고수온 영향' 여수 양식장 우럭 떼죽음에 어민들 '망연자실'

【기후변화에 따른 어류 폐사】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 실제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수온 특보는 최대로 발생되었음¹⁰⁾
 - 최근 30년 중에서 가장 높은 해면수온 기록 횡수(2022년 기준) : 동해(5회), 황해(1회), 동중국해(6회)
 - 최근 5년(2018~2022) 고수온 특보일수 : '18년(43일), '19년(22일), '20년(22일), '21년(43일), '22년(64일)

10) 환경부(2023.6), 제3차(2023~2025)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 어업재해 피해규모는 최근 12년간(2011~2022) 총 2,382억원으로 가장 큰 어업재해는 고수온이며, 피해액은 1,25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과반수 이상(53%)임
 - 그 다음 피해액은 적조 492억원(21%), 저수온 268억원(11%) 등임
 - 2018년의 경우, 양식생물 피해가 많았으며, 고수온, 저수온, 한파로 713억원 피해가 발생함
 -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액은 605억원으로 피해어가 850어가(경남, 전남, 충남, 제주도), 피해물량은 63,963천 마리(넙치, 전복, 조피볼락, 돔류 등)가 폐사함

Ⅲ 정부의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현황

1. 해양수산부의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

▶ 해양수산부에서는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을 마련해 해양수산업계, 연안 지역민, 해양생태계 등이 겪는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중임

- 비전 :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
- 목표 :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 저감(18년 대비),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재산·인명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 전략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온실가스 흡수 및 전환,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기후위기대응 이행력 확보의 4가지로 추진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의 기후위기 관련 주요 전략】

구 분	추진 전략	세 부 내 용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연안 기후재해의 선제적 예방체계 완비	• 연안재해 대응 기반 정비(연안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조사 고도화 및 대응체계 개편, 해양기후 재해 예·경보 시스템 도입 등) • 연안정비·재생 체계 개선(생태친화적 해안선 재설계, 완충구역 확보 등)
	수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체계 공고화	• 수산업어촌 기후위기 실태분석 기초조사 강화 • 기후변화 사회 적응력 확보 제도 신설·개선 추진 • 기후변화 리스크 예방 기술개발(양식수산물 고수온 내성 평가 및 육종, 신규 수산질병 대응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정밀 분석 대응	• 한반도 해양생태계 영향분석 및 예측체계 마련 • 생물다양성 감소, 유해·교란종 발현 등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기후위기대응 이행력 확보	데이터 기반의 해양 기후변화 관측·예측	• 주요 해양기후변화 현상 연근해 관측 강화 • 스마트기술 등 활용해 고도화 추진 • 한반도 연근해 해양기후변화 예측력 강화를 위해 해양 기후예측 모델 구축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과 극지 및 대양 요인 관측·영향 강화
	기후위기대응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산학연관 연계 강화(해양학과와 연계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인재 양성, 해양환경 관련 기업 사회공헌 활동(CSR) 모델 개발·추진 등) • 해양 관련 국제기구·회의체에서 해양 기후변화 의제 주도 • 기후변화대응 ODA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등 양자협력 전략적 확대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9.15.)의 '탄소중립 대전환,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새출발' 내용에서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2. 환경부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강화대책(2023~2025)'

■ 환경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강화대책(2023~2025)'을 수립해 추진중이며, 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생태계 안정성 유지' 임

- 비전 :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
- 목표 :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 정책 : 과학적 기후 감시 예측 및 적응 기반 고도화, 기후재난·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모든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강화대책(2023~2025)'의 수산업 관련 주요 정책】

구 분	추진전략	세부내용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조성	농수산 생산기상 정보 고도화 및 기후재난 대응	• 수산부문 생산성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수산 생산성 변화 진단·예측 강화 • 수산 외래종, 수산생물질병·병원체 모니터링 강화
	기후재해 대응 생산기반 적응력 제고	• 수산물 생산해역 환경관리 강화
	기후적응형 기술·품종 개발 및 인프라 스마트화	• 기후영향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수산업 확산 • 아열대성 어종 등 기후적응형 어류 양식 기술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및 식량안보 제고	• 수산분야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해 농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 확대
생태계 안정성 유지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정보제공 강화	• 해양·갯벌·담수 생태계 모니터링
	생물대발생 등 생태계 기후재난 위험 대응 강화	• 외래생물, 교란생물 등 조사 및 관리 강화
	기후위기 취약생물 보호 및 생태계 다양성·안정성 증진	•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한 관리 다각화

자료: 환경부(2023.6)의 '제3차(2023~2025)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내용에서 수산업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3.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¹¹⁾**
 - 1990년대 제정 당시 이상조류, 적조현상의 두 가지 재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하였으나 현재는 어업재해 분야가 다양해지며 확대되었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어업재해 : 이상조류·이상수온, 적조현상, 태풍·해일 등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태풍, 해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을 보상해주는 보험임¹²⁾**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구분되며, 현재 총 28개 품목(본사업 품목 17개, 전국 대상 및 시범사업 품목 11개, 일정기간 제한지역 대상)에서 실시함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명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보장수준은 태풍, 적조 등 15개 이상이며, 수산물은 시가의 85~90% 수준, 시설물은 원상복구비 전액을 지원
 -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어가 부담 순보험료 50%, 보험가입자 운영비 100% 국가가 지원하며, 거대재해 위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 제도를 통해 위험 분산 시스템을 구축함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8천어가에 약 4천8백억원 보험금을 지급해 재해피해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함
 - 최근 5년간(2018~2022) 약 53백 어가에 2천 5백억원 지급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12) 농업정책보험금융원(www.apfs.kr), 해양수산부(2023.6), 제1차(2023~202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IV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영향 및 과제

1.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영향

■ 기후변화에 따라 해역별 어획량 변화와 어종변화 등이 발생되고, 해양생태계의 생산성이 감소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 수산업 생산·유통·소비의 구조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어획량의 변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현재 추세로 수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해역에서 한류성 어종은 점차 감소되고, 난류성 및 아열대 어종의 비중이 높아질 것임
 - 즉, 기후변화로 난류성 및 아열대 어종의 생산량 증가로 발전될 것이나 한류성 어종은 생육 부진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등 가격변동에도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다양한 수산물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다수의 어업재해 발생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어업인의 보험료 증가 뿐만 아니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요인으로도 작용

- 실제 거대재해로 2022년까지 높은 수준의 누적 손해율(190%¹³⁾) 발생함에 따라 보험 지속성 저해 발생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 ('09) 6.9 → ('12) 1,100.5 → ('16) 274.6 → ('19) 384.0 → ('22) 40.4¹⁴⁾

13)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

14) 해양수산부(2023.6), 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과제

▶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매년 3.01mm 상승)과 표층수온 상승(최근 55년간 약 1.36℃ 상승) 및 평년보다 높은 해상기온(평년보다 0.8℃ 높음) 등 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정부)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강화 및 장기적 어업 생산성 저하 품종에 대해 어업인 피해대책 마련
- (정부) 기후변화 적응품종과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인의 기후위기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업소득 창출 지원
- (정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연근해 관측 강화 및 기후변화 실태분석 기초조사 강화 필요

▶ 품종별·업종별·해역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고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응책 필요

- (정부) 어업인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정책 우선적 지원 필요
 - 연근해어선 : 에너지 절감형 내연기관(엔진)으로의 교체(41.3%)
 - 양식어업 :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로의 교체(35.3%)
 - 마을어업 : 어업인 인식전환 교육(33.3%)
- (수협) 어업인 대상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실시
- (어업인)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자발적 참여

▶ 현재 기관별로 산재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종합하여 어업인에게 인지할 필요

- (정부) 어업인 기후변화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
 - 어업현장에서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정보제공 및 알림서비스
 -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장 피해발생 사전 대비요령 등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
- (조합) 기후변화 대응 통합 매뉴얼 등 회원조합을 통한 자료 배포 등 정보제공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가입 지원 활성화를 통해 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양식업 어업인들의 지원 필요

- (정부) 우리나라 전체 76개 양식품목 중에서 현재 보험대상 품목인 28개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품목에 대한 대상품목 확대 필요
- (정부·조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해 어업인 의견청취를 통한 보장범위 개선, 어업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특약사항 마련 등 어업인 가입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 (어업인) 기존 재해보험 특약사항 미가입 어업인들의 가입 활성화, 적극적인 가입 참여 독려

【참고문헌】

국립수산물과학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환경부(2023.6), 제3차(2023~2025)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4),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조사’ 결과
 해양수산부(2023.6), 제1차(2023~202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보도자료·신문기사

남해안신문(2023.9.19), 한해 저수온·고수온 연이은 직격탄, 여수 앞바다, 괜찮나
 비즈니스포스트(2023.3.16), 연어는 죽고 멸치는 줄고, 북극해 넘어 한국에도 바다폭염
 몰려온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2022.12.21),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 지난 33년동안
 평균 9.9cm 높아져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9.15), 탄소중립 대전환,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새출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2.21),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생태계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3.10), 신(新)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전망
 news1(2023.8.26), ‘고수온 영향’ 여수 양식장 우럭 폐죽음에 어민들 ‘망연자실’

인터넷 사이트

국립수산물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www.apfs.kr),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
 해양기후예측센터(www.ocpc.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어업인 기초생활수당 도입 필요성

이 창 수 책임연구원
(changsoo@suhyup.co.kr)

목 차

요 약	61
I. 검토 배경	63
II. 국내외 각종 수당 도입 현황 및 사례	66
III.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 및 공익적 기능	73
IV. 어업인 기초생활수당 도입 검토	81

요 약

■ 검토 배경

- 농업부문에서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 정화, 농업 경관 제공 등 다원적·공익적 기능 수행의 보상차원에서 농민수당 제도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확산되고 있음
- 수산부문 역시 다양한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농업부문에서와 같은 수당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수산 부문에 농민수당과 같은 제도를 확대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각종 수당 도입현황

- 각종 수당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청년수당, 아동수당, 농민수당으로 구분함
- 이들 수당들은 2010년대 중후반 도입되었으며, 아동수당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근거법으로 활용
- 청년수당과 농민수당은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못했고 각 지자체의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음

■ 농민수당 도입 주요 내용

-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도입
- 농민 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50~80만 원을 지급함
- 지자체 농민수당 도입 현황

지자체	명칭	내 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희망 시군 농민 1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농가 당 연간 70만 원 지급
충남도	농민수당	농어가 당 연간 80만 원 지급
충북도	농민수당	농가당 50만 원 지급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대상, 금액, 시기 등 미정
경북도	농민수당	봉화군 70만 원, 청송군 50만 원 지급 등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농어가 대상 연간 60만 원 지급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농가 당 연간 60만 원 지급
제주도	농민수당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조례제정

■ 어업인 기초생활수당 도입의 필요성

- 도시 대비 열악한 정주여건 : 어촌은 농촌과 마찬가지로 도시화·공업화 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가지고 있음
- 도시 대비 소득 격차 : 어가소득은 농가소득보다는 높지만 도시가구 소득에 비해서는 75.1% 수준에 불과
- 공익적 기능 수행 : 수산업·어촌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어업인 기본소득 또는 어민수당 도입 필요
- 농민과의 형평성 확보 : 농업부문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농민수당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반농반어의 형태를 가지는 어촌에 동 제도의 확대 또는 어촌에 특화된 수당 도입 필요

■ 당면 과제

- 어업인 기초생활수당 도입을 위해 실태조사 및 기초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실태조사, 법적 성격 규명
 - 자원 조성 방안 등
- 어업인 기초생활수당에 대한 정의·성격 규정 및 법적 근거 마련
-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자원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I 검토 배경

1. 검토 배경

■ 농민수당 일부 지자체 시행, 수산 부문으로 확대 요구

- 농업부문에서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 정화, 농업 경관 제공 등 다원적·공익적 기능 수행의 보상차원에서 농민수당 제도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확산되고 있음
-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도 마련되고 있음
- 수산부문 역시 다양한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농업부문에서와 같은 수당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활용 가능성 제기

-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도시집중 현상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인력난과 함께 지역소멸의 위협에 직면
 - 농촌과 함께 어촌은 도시에 비해 정주여건이 열악한 반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수산직불제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기초수당은 어업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과 함께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됨
- 수산 부문에 농민수당과 같은 제도를 확대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어업인 기초생활수당의 개념

■ 어업인 기초생활수당의 의미

- 가칭 어업인 기초생활수당(이하 어업인 수당)은 농업부문에서 시행하는 농민수당을 수산 부문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 어업인 수당은 농민수당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론적 배경 및 발전 과정 등을 공유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운영의 주체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산, 소득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
-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는 청년수당, 아기수당이 있음

■ 도입 배경

- 첫째, 사회 양극화의 심화 :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노동자, 농어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었음
- 둘째, 선별복지의 한계 : 복지수혜자의 선별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노동력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며 인권침해 요소도 지적되고 있음
- 셋째, 일자리 감소 :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복지 증대가 필요함
- 넷째, 인권의식의 확대 : 법률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조되고 확대됨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도 늘어남

※ 농민수당, 청년수당, 아기수당 등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도입 배경이 추가되기도 함

■ 어업인 수당 외에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대안에 대해 다양한 담론이 제기됨

-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음
- 음소득세, 기초자산, 보편적 기본서비스, 참여 소득, 일자리 보장 등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담론들임

【유사 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음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특정 소득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징수하고, 그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게는 시장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내에는 음소득제를 변형한 안심소득제가 제안됨
기초자산 (stakeholder grant)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성인 초기의 청년에게 부모와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자는 방안	영국에서 아동신탁기금 (child trust fund) 제도를 운영(2004~2010년)
보편적 기본서비스 (universal basic service)	특정 정치공동체의 모든 주민이 무상의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무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	2018년 영국 노동당 강령으로 채택
참여 소득 (participation income)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치 있는 일'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음
일자리 보장 (job guarantee)	최종고용자인 정부가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2020년 미국 대선과정 일부 대선주자들이 주장

자료: 유영성 외(202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Ⅱ 국내외 각종 수당 도입 현황 및 사례

※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기초수당’으로 고쳐 서술하였음(단 고유명사는 그대로 사용)

1. 우리나라의 수당 현황

■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점점 확대, 팬데믹으로 전국민 경험

-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실시했고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이어짐
 - 제도 시행 초기 :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배당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분기 1회 연간 50만 원 지급(분기당 12만 5천 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이어진 후 배당금은 연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됨
- 청년배당과 유사한 제도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전시의 청년취업 희망카드, 부산시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광주시 청년드림수당 등이 있음
- 2020년 팬데믹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음
 - 1차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이며,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
 - 2차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이뤄지는 지원으로, 앞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선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소상공인·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이었음
 - 3차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난지원금으로, 긴급 피해 지원,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이루어짐
 - 4차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2021.3.29. 지급 시작)
 - 5차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침체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②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③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④ 소상공인 손실보상,
- ⑤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함

■ 각종 수당의 유형

- 우리나라의 각종 수당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청년수당, ② 아동수당, ③ 농민수당으로 나뉘며 201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었음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을 근거로 하며, 청년수당과 농민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
 - 아동수당도 각 지자체에 조례를 두고 시행하고 있음
 - 청년수당과 농민수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 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수당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 청년수당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총 30개 지자체임
- 30개 지자체 중 29개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지자체이며, 나머지 한 곳은 충남의 청양군임

【청년수당 관련 조례 현황】

NO	조례	지역	NO	조례	지역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16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양주시
2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가평군	17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양평군
3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고양시	18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여주시
4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과천시	19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연천군
5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광명시	20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오산시
6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광주시	21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용인시
7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구리시	22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의왕시
8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23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9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24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이천시
10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부천시	25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파주시
11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수원시	26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평택시
12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시흥시	27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포천시
13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안산시	28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하남시
14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안성시	29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화성시
15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안양시	30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	충남 청양군

■ 아동수당 관련 법적 근거

- 아동수당의 법적 근거는 「아동수당법」에 있으며, 별도의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성남시와 전라북도 순창군임
 - 성남시 :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순창군 :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농민수당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총 32개 지자체임
- 32개 조례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시도 단위이며 나머지는 시군임
-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까지 조례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농민수당 관련 조례 현황】

NO	조례	지역	NO	조례	지역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17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용인시
2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가평군	18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의왕시
3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광명시	19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4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광주시	20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이천시
5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김포시	21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파주시
6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22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평택시
7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23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포천시
8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시흥시	24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하남시
9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안산시	25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화성시
10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안성시	26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경남 합천군
11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양주시	27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경북 청송군
12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양평군	28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13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여주시	29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북 순창군
14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경기도 여주시	30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전북 완주군
15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연천군	31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16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	경기도 오산시	32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충남 부여군

■ 농민수당 도입 주요 내용

-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민수당, 농어업인 수당, 농민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어민공익수당이라는 명칭 등으로 제도를 도입
- 농민 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0~80만 원을 지급함

【지자체 농민수당 도입 현황】

지자체	명칭	내 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희망 시군 농민 1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농가 당 연간 70만 원 지급
충남도	농민수당	농어가 당 연간 80만 원 지급
충북도	농민수당	농가당 50만 원 지급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대상, 금액, 시기 등 미정
경북도	농민수당	봉화군 70만 원, 청송군 50만 원 지급 등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농어가 대상 연간 60만 원 지급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농가 당 연간 60만 원 지급
제주도	농민수당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조례제정

■ 수당 관련 법령 제정 동향

- 3대 수당 중 청년수당과 농민수당은 법적 근거를 지자체의 조례에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수당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기준이나 특성을 달리함
- 정부 및 국회에서는 수당에 대한 기본법령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는 못한 상황임

【수당 관련 법령 제정 동향】

발의연월일	법률안	발의자
2020.6.30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성일종 등 12인
2020.9.16	기본소득법안	조정훈 등 14인
2020.9.24	기본소득법안	소병훈 등 12인
2020.12.22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 등 21인
2021.6.22	농민기본소득법안	허영 등 66인
2021.6.29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등 32인
2023.1.18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이원택 등 12인

2. 해외의 기초수당 도입 사례

■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 1959년 알래스카는 주 헌법에 의해 주의 자원은 주민의 소유로 규정
- 1974년 천연가스에 대해 채취세를 부과, 주민 1인당 150달러를 세액공제로 분배
- 1976년 주 헌법 개정,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해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25%를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으로 조성
- 1980년 주영기업인 알래스카 영구기금공사에서 관리 중
- 지급대상
 - 전년도 달력상 1년을 알래스카에서 거주
 - 해당 연도의 배당을 신청하는 날에 알래스카에 무기한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짐
 - 전전년도 12월 31일 이후 다른 주나 국가에 거주하지 않았고, 거주에 따른 복지 급부를 받지 않음
 - 전년도에 중범죄 판결로 처벌받지 않을 것
 - 알래스카에 최소 180일 이상 거주
 -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최소한 연속 72시간 동안 실제로 알래스카에 거주
- 배당액의 결정 절차
 - 영구기금의 지난 5년 간의 법정 순수입을 합산
 - 5년간 수입의 평균에 법정 비율인 21%를 곱함
 - 배당에 할당되는 수입의 법정 비율을 위해 2로 나눔
 - 전년도 의무 지출, 주의 비용, 영구기금 배당 부서의 운영비 등을 공제
 - 수급 자격이 있는 신청자 수의 추정치로 나누어 개인별 배당 금액 결정

■ 스위스의 탄소부담금과 탄소 배당

- 도입 배경
 - 2008~2012년까지 1990년에 비해 탄소배출을 8% 감축 의무화
 - 1999년 탄소법 제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내각이 탄소부담금을 도입하고 부담금 수입을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

- 2007년 탄소시행령 제정, 2008년부터 탄소부담금 도입 및 국민과 기업에 환급하는 방안을 구체화함
- 탄소부담금 수입의 1/3은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절감 개량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사용
- 나머지 2/3는 국민과 기업에 배분

■ 세계 각국 기초수당과 관련한 실험 실시

- 세계의 각국은 기초수당의 도입에 앞서 다양하게 제도를 실험하고 있음
- 기초수당 관련 실험 : 나미비아, 인도, 우간다, 케냐, 미국 스탠포드의 SEED 프로젝트, 독일 등
- 유사 기초수당 관련 실험 : 미국과 캐나다의 음소득세, 핀란드 실업자 기초수당,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최저소득, 미국의 Y-combinator 등

3. 농민수당 도입 논의

■ 농민수당의 성격

- 농민수당의 성격은 크게 기초수당 측면과 농민수당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민기초수당 : 취약계층인 농민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초수당
 - 공업화 도시화 우선정책에서 농민들이 희생되었고, 이러한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제도
 - 농민은 오늘날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함
 - 지역 간의 소득 균형
- 농민수당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9항
 -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농민수당의 개념 차이 및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수당	지급 목적의 명확화	의미의 축소
	정책추진의 용이성	사람중심이 아닌 농업가치 중심
	정책의 빠른 확대	농정의 근본적 개혁 한계
기초수당	기존의 원칙 충실	개념 및 목적의 경계 모호
	여성 등 가족농민의 권리 신장	정책 추진동력의 약화
	사람 중심의 근본적 농정 개혁	예산 확대에 인한 어려움

■ 농민수당 관련 검토사항

-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별 지급 또는 농민 개별 지급
- 거주 및 영농기간
- 지급액
- 지급 제외 대상자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및 이행 조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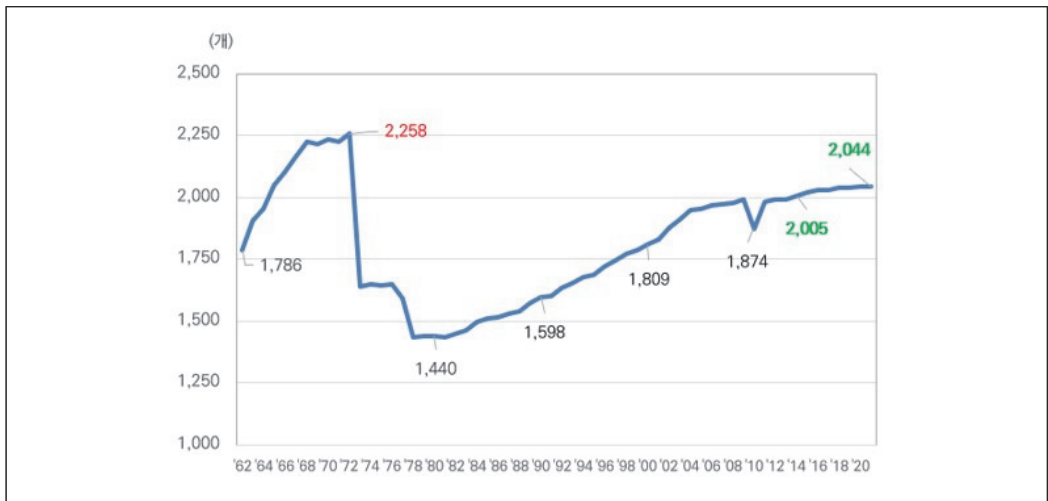
Ⅲ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 및 공익적 기능

1.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황

■ 어촌계 수 및 어촌계 분포

- 우리나라의 어촌계는 1960년대 초 1,786개에서 1970년대 초 2,258개로 늘어났음
- 이후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1,440개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임
- 2022년 현재 전국의 어촌계는 2,044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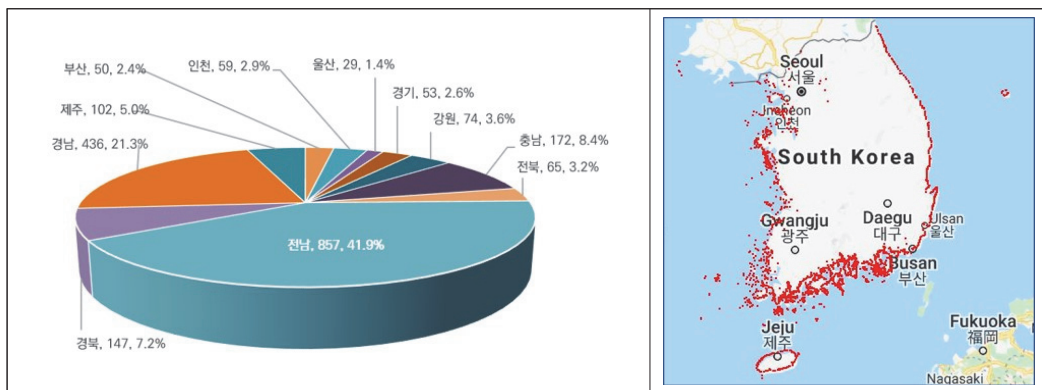
【연도별 어촌계 수 변화 동향】



자료: 수협중앙회, 「2022년 어촌계 현황조사 결과 보고」

- 어촌계는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분포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전남에 전체 어촌계의 41.9%가 분포하며, 경남 21.3% 나머지 지역은 10% 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어촌계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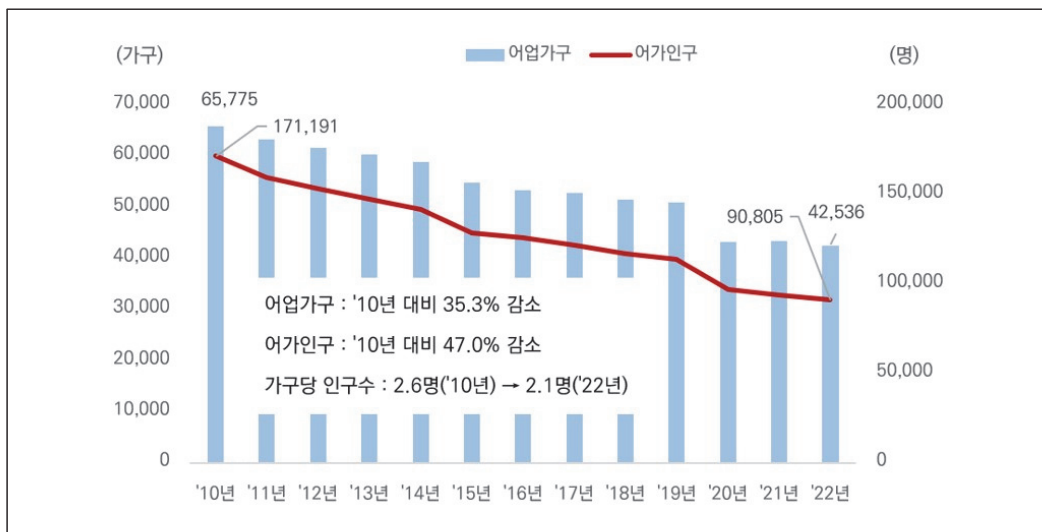


자료: 수협중앙회, 「2022년 어촌계 현황조사 결과 보고」

■ 어가 및 어가인구 분포

- 지난 10여 년 간 어가 및 어가인구의 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음
- 어가의 경우 2010년 6만 5,775가구에서 2022년 현재 4만 2,436가구로 35.3% 감소했음
- 어가인구는 17만 1,191명에서 9만 805명으로 47.0% 감소했으며, 가구당 인구수도 2.6명에서 2.1명으로 감소

【연도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변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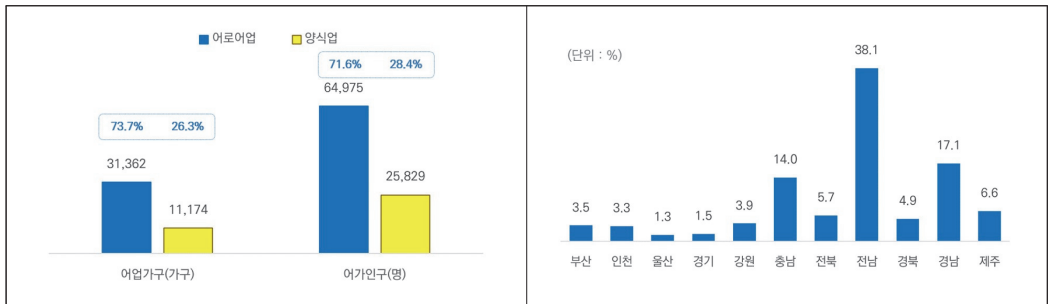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 업종별 분포는 어로어업이 70% 이상

- 업종별로 어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어로어업 종사 어가가 전체의 73.7%, 양식어가는 26.3%로 나타남
- 어가인구 역시 이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어로어업은 71.6%, 양식어업은 28.4%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의 업종별·지역별 분포 현황(2022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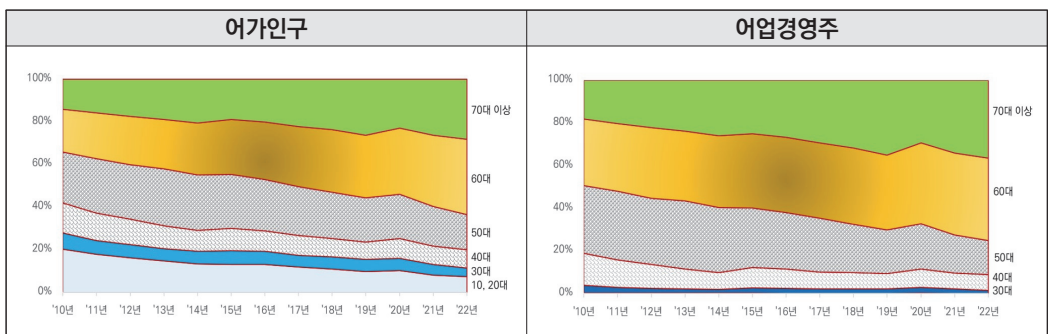
■ 어가인구의 지역별 분포

- 지역별로는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전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남이 38.1%, 경남 17.1%, 충남 14.0% 등으로 나타남

■ 어가인구 및 어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 어가인구 및 어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지난 10여 년 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어가인구 및 어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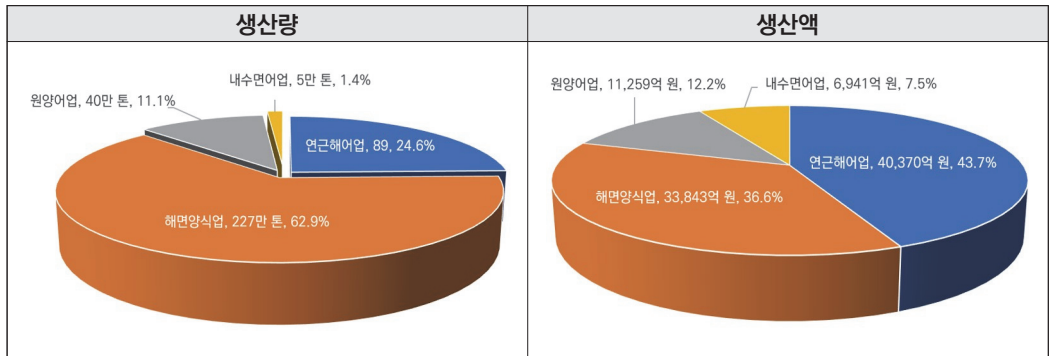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 양식업 생산량은 많지만, 생산액은 상대적으로 적음

- 업종별로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해면양식업이 전체의 6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 그러나 생산액은 연근해어업의 비중이 43.7%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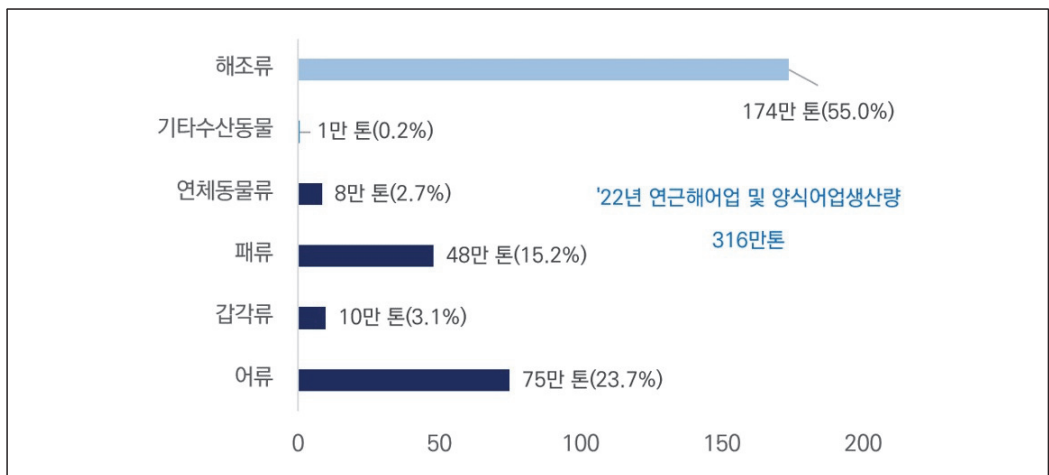
【어업별 수산물 생산고 현황】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2022년

- 품종별로는 해조류의 생산량이 전체의 55.0%로 가장 많았음
- 단백질을 공급하는 어류의 경우 23.7%, 패류는 15.2% 등의 비중을 차지함

【품목별 생산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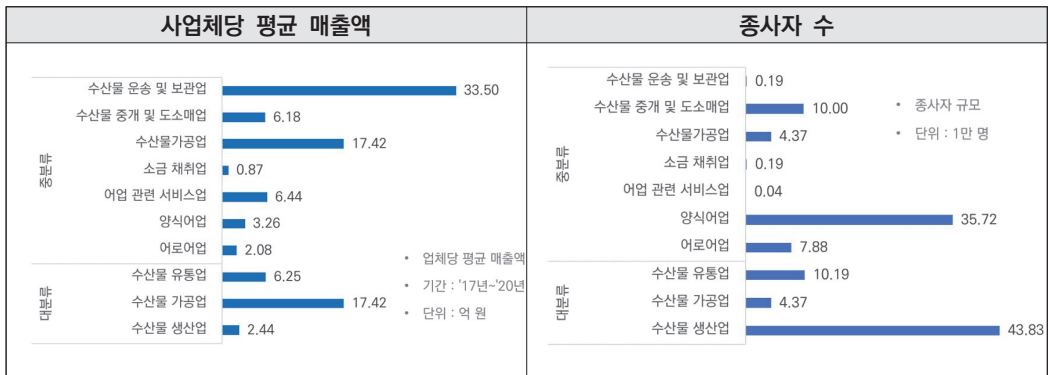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2022년

■ 수산산업을 통해 국민 경제 기여

- 수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매출액을 보면 수산물 유통업이 업체당 평균 6억 원, 가공업은 17억 원, 수산물 생산업은 2억 원으로 나타남
- 종사자의 수는 수산물 유통업 10만 명, 가공업 4만 명, 수산물 생산업 44만 명임

【해양수산업의 평균 매출액 및 종사자 수(2017~2020 평균)】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017~2020년.

2.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 법률상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정의함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이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말함

■ 어촌의 공익적 기능

- 법률상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외에도 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은 국토의 관점, 환경적 관점, 관광자원 제공, 국민 정서 함양 등 다양함
- 국토의 관점은 국토의 균형적 이용, 국토방위 등을 의미
- 환경적 관점에서는 연안 경관관리, 연안 수산자원 관리 등이며, 관광자원의 경우 자연경관 뿐만 아닌 인문학적인 자원을 포함함

- 국민정서 함양은 국민들에게 ‘고향’이라는 정서를 제공하고 있음

【어촌의 공익적 기능】

국토의 관점	환경적 관점	관광자원(여가 포함) 제공	국민정서 함양
•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 • 국토방위(연안 방위 개념) 등	• 연안 경관 관리(바닷가 청소 등) • 연안 수산자원 관리(산란장, 서식처 보호, 수산자원 유지 등)	• 자연, 어촌 경관 • 어촌의 삶과 전통 • 어업지식 • 체험 등	• 국민들에게 ‘고향’이라는 정서 제공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본원적 기능
 - 인간 뇌 진화에 필수적인 DHA와 생명 유지에 필수인 미량원소(trace elements)를 공급
 - 세계 인류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20% 정도는 수산물이 담당
 - 수산물 자급률 하락으로 식량안보 위협에 대비 필요
- 어업인 삶의 터전 및 고용기회 제공
 - 해안선 근교에서 세계인구의 절반인 27억 명이 거주
 - 어업활동은 소득의 창출 및 고용기회를 부여하는 중요 산업
- 국토방위
 -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는 바다에서의 밀입국, 밀수, 영해 침범, 외국어선 불법 조업 등 주권과 치안을 위협하는 사건 발생 시 발견·통보 등의 역할 담당
 - 해난구조, 재해 시 구조, 환경 모니터링 등 역할은 국민생명·재산 보전에 공헌
- 문화유산 가치 증대 및 보존
 -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어업유산은 식량 확보, 생태, 사회문화, 경관, 전통 어법 및 지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기여
 - 신안해저문화재 발굴이나 태안 앞바다 고려시대 유물 및 침몰선의 최초 발견자는 어업인으로 해저문화 발굴에 결정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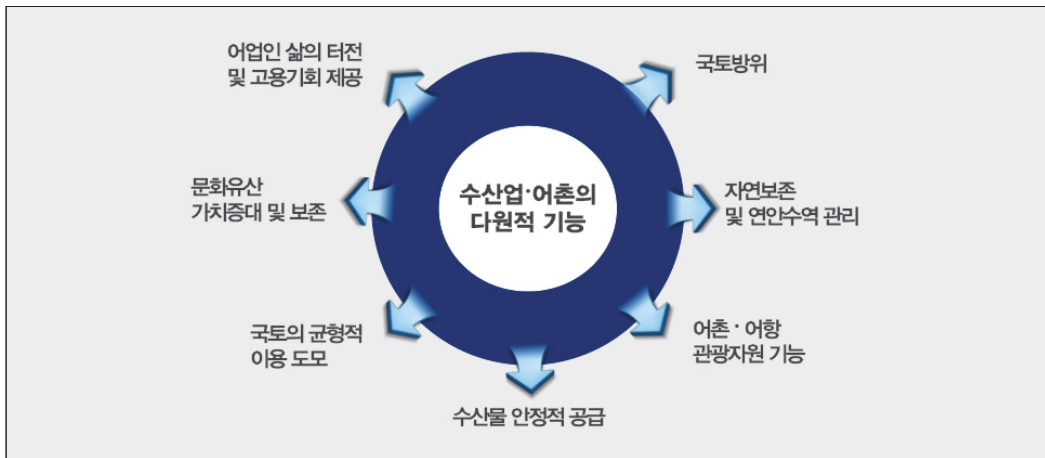
○ 국토의 균형적 이용 도모

- 수산업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경우, 생활 기반이 사라져 어민이 어촌을 떠나고, 많은 섬이 무인도로 전락하여 국토가 버려짐
- 국경감시 등의 필요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낙도의 지속적 관리 필수
- 자연보전 및 연안수역 관리
- 해조장은 영양염류 흡수를 통한 수질정화 기여, 여과성동물은 식물플랑크톤 등 현탁입자를 체내 흡수·소화를 통해 여과, 즉 바이오 필터 기능으로 물의 투명도를 높임
- 어항은 어업인이나 어촌주민의 정주 공간인 동시에 국민이 이용하는 공적 공간으로, 어항 청소는 어촌주민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업·어촌의 존재에 의해 환경보전 기능이 향상
- 미국 조지아 대학교 오덤(Eugene P. Odum) 교수팀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갯벌은 하루 5,425톤의 오염물질 정화

○ 어촌·어항 관광자원 기능

- 생활 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 웰빙·힐링니즈 확산 등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해수욕장 청소, 관리, 사고 대응, 바다의 이용 측면에서 어업이나 어촌 사람들이 관여 및 편의 제공을 통해 도시민의 바다 이용수준이 향상
- 해양관광산업은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측면에서 지역 및 국가경제에 효과적으로 기여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3. 시사점

■ 어촌은 전국에 분포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어촌계는 전국 연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국토, 환경, 관광자원 및 국민 정서 함양의 기능 수행

■ 수산업은 수산물 생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함

- 수산물은 농산물과 함께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식량임
- 수산업은 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기능함

■ 수산산업, 국민 경제에 기여

- 수산산업은 생산 등을 통해 실적을 보였으며, GDP에 기여함
- 또한 고용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추가적인 발굴 필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으로 다양
- 반면 수산업어촌은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으로 농업농촌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어촌의 경우 국토의 관점, 환경적 관점, 관광자원 제공, 국민 정서 함양 등 다양하므로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함

Ⅳ 어업인 기초생활수당 도입 검토

1. 어업인 기초생활수당 도입의 필요성

■ 도시 대비 열악한 정주 여건

- 어촌은 농촌과 마찬가지로 도시화·공업화 우선 정책으로 말미암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정주 여건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소멸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함
- 따라서 취약계층화 된 어업인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보편적 권리로써의 기초수당 도입이 필요함

■ 도시 대비 소득 격차

- 지역 간 소득의 측면에서 보면 어가소득은 농가소득보다는 높지만 도시가구 소득에 비해서는 75.1% 수준에 불과함
- 다만 연령별로 보면 50세 미만의 경우 도시가구 대비 83.1% 수준으로 낮았고, 50세 이상의 소득에서는 다소 높았음
 - 이러한 현상은 농가소득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도시가구와 농어가 간 은퇴연령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2022년 현재 도시·어가·농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도시가구 (2인 가구)	어가		농가	
			도시가구 대비		도시가구 대비
전국평균	70,442	52,911	75.1	46,153	65.5
50세 미만	80,752	67,133	83.1	52,062	64.5
50~59세	80,622	91,430	113.4	76,998	95.5
60~69세	53,071	60,518	114.0	55,941	105.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어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

■ 공익적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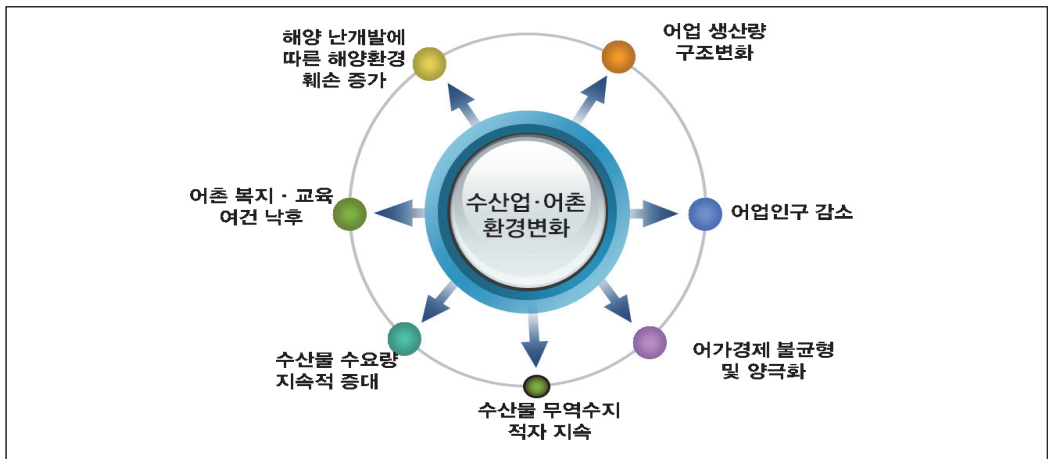
- 수산업·어촌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어업인 기초수당 또는 어업인 수당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어촌의 지속성과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어업인에게 직접 보상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농민과의 형평성 확보

- 농업부문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농민수당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반농반어(半農半漁)의 형태를 가지는 어촌에 동 제도의 확대 또는 어촌에 특화된 수당 도입 필요
- 수산업·어촌은 농업·농촌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형평성 확보 필요

■ 수산업·어촌 환경 악화

【수산업·어촌 환경 변화】



- 어업인구 감소
 - 어촌은 교육환경 및 생활·문화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주민의 거주 유인 요인이 적음
 - 국토방위,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균형발전 및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정주가 필수

- 어촌 인구의 감소는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수행을 저해
- 어업 생산량 구조변화
- 어업생산은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
- 최근 WTO/DDA, FTA 등 대외 개방으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 및 국내산 수산물 가격의 동반하락으로 어업인의 출어 포기
- 어획 생산고 감소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간접피해도 동반
- 어가경제 불균형 및 양극화
 - 중산층 수준의 기대소득 지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
 - 어업별/연령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어업인 간 갈등 요인 발생
-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지속
 - 한중 FTA 발효 이후 대 중국 수산물 수입 및 무역적자 심화
 - 수산업부문 대 중국 무역적자 심화로 국내 수산물 수요·공급에 대한 중국 영향력 확대 → 식량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 저가의 중국 수산물 수입으로 국내 수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어업인 수입 감소 예상
- 수산물 수요량 지속적 증대
 - 1970년 이후 수산물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웰빙 열풍을 바탕으로 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 국내 수산물 생산과 수요량과의 괴리는 지속
 - 해양환경 변화로 주 어획 어종이 명태, 대구 등 한류성 어종에서 고등어, 멸치 등 난류성 어종으로 변화
- 어촌 복지·교육여건 낙후
 - 농어촌 지역 간 서비스 제공 수준 및 삶의 질 격차 심화
 -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
 - 농어촌의 보건복지 서비스 만족도는 낮으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는 높은 상황
 - 높은 보건복지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질병·사고 등 사회적 위험, 노후생활 관련 개인 혹은 가구 단위 경제적 대비는 미흡

- 그간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인구 및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 보건복지서비스의 수요 대비 도농 간 차이는 지속되고 있음
- 해양 난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훼손 증가
 -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 및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생물의 대규모 산란장, 생육장, 서식장 파괴 발생 → 부정적 영향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 천혜의 황금어장 상실 우려
 - 바닷모래 채취로 해양 생태계 파괴 지속

2. 당면 과제

■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연구 수행 필요

- 어업인 수당 도입을 위해 실태조사 및 기초 연구 등이 선행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실태조사, 법적 성격 규명
 - 재원 조성 방안
 - 일반 국민 인식 등
- 농업 부문의 사례 등은 어업인 수당 도입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어업인 수당에 대한 정의·성격 규정 및 법적 근거 마련

- 어업인 수당을 취약계층, 지역 차별 등에 따라 도입하는 기초수당의 개념으로 규정할 것인지 또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른 사회적 보상으로 볼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을 제외한 청년수당과 농민수당은 법적 근거를 지자체의 조례에 두고 있어, 어업인 수당도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청년수당과 농민·어업인 수당의 근거 법령이 제정되어야 함

■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초수당 제도의 도입 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중 하나는 재원 마련 방안임
- 순수하게 세금을 재원(財源)으로 할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확산이 용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재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참고문헌】

경기도(2023),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

박경철(2020),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필요성, 쟁점 그리고 과제”, 계간 농정연구, 72, 120-130.

박경철(2020), “포퓰리즘과 생존 사이: 지자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열풍’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과 기대”, 농촌사회, 30(2), 311-332.

송원규(2020),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운동 다양화로 인한 긴장과 갈등”, 농촌사회, 30(2), 333-346.

유영성·정원호·서정희·마주영(2021), 기본소득과 유사제도 비교 연구, 경기연구원.

유찬희(2021),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87.

수산경제연구원 이슈포커스 2023-03호

발행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발행인	회장 노 동 진
편집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엄 기 두
수산경제연구원 연락처	전화 (02) 2240-0414 팩스 (02) 2240-0420 홈페이지 http://fei.suhyup.co.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 2275-6894
발행일	2023. 0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